

2 2025 VOL. 344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PT. BOSUNG INDONESIA

PT. BOSUNG INDONESIA



CORRUGATED SHEET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INNER BOX

<제품안내>

종이 골판지 생산

카톤박스

포장용 박스

종이 쇼핑백

포장재 전문회사 보성인도네시아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Banten 15560,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021) 5935 1001 (hunting)
Fax. (021) 5935 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T. TAEWON INDONESIA

PT. TAEWON INDONESIA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 PULP MOLD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021) 8948 1234 Fax. (021) 8984 1133/1134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월간 한인뉴스 2 2025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헌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김종헌

편집인 양태화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노병진, 송기섭, 송호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취임식 2025 1. 17.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복잡다단한 인도네시아 이슬람 쉽게
이해하기**

8

제 7대 김종헌 한인회장 취임

10

대사관, 신년인사회

14

[김재훈의 '세무 TALK']

부과세율 인상 시행령

16

2025 제 1차 회장단 회의

17

코참, '상공인의 날' 열어



contents

2025. 2. 통권 343호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38

[특별인터뷰] 신태용감독 출국인사

56

평범한 일상의 위로 〈최하진〉

22

[여기가 맛집!] Jia 〈황지영〉

40

[인터뷰2.0] K- Style Hub
대표이사 박윤정

60

[반려동물, 랜선집사]
한경이와 다경이의 미니동물원
〈이한경, 이다경〉

2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호운〉

45

[디카시 풍경] 도약 〈김동환〉

62

JIKS 소식

26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8]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46

[행복에세이]

사계의 섬, 아이슬란드 〈김준규〉

64

IKCS북클럽, 한강작가의 작품으로
첫모임 성황리에 개최

30

[서상영의 한방칼럼 22]

생활 한의학 5

48

[칼럼] 재인도네시아 한인에게
의례란 〈조연숙〉

65

롯데마트 꾸닝안시티점 'K푸드 중심
그로서리 전문매장'리뉴얼

34

[자카르타의 아침]

골프 연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상현〉

50

Hyaang the Yoga 5

〈Michelle〉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37

민주평통, 신년회 및 주니어평통
출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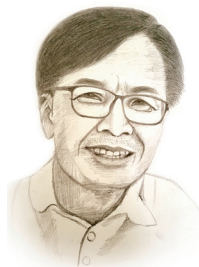
54

인도네시아 역사단체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이야기 〈배동선〉

68

생활정보

“복잡다단한 인도네시아 이슬람 쉽게 이해하기”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에서 좀 살다 보면 현지 사회가 이슬람 사회인지 잊고 살 때가 많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은 아니지만 인구 약 2억8천만 명 가운데 85%가량인 2억4천만 명이 무슬림으로 이슬람 주류사회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중동지역은 물론 다른 나라의 이슬람과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지정학적으로 인도네시아 군도는 이슬람의 본거지인 중동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인도와 중국 사이의 열대우림 지역에 위치한 만큼 유목 생활을 했던 중동국가와 내륙지역인 중앙아시아 국가 민족들의 이슬람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다른 나라의 이슬람과 비교할 때 다원성과 혼합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주류사회를 이루고 있지만 이슬람 신앙을 강요하거나 타종교에 대해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슬람은 정복전쟁을 통해 전파됐으나, 인도네시아 군도에는 평화롭게 해상무역을 통해 오랜 기간을 거쳐 확산됐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이슬람 역사는 명확하지 않다. 고대부터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본격적으로 이슬람교가 포교되기 시작한 시기는 12~13세기 아랍과 인도 상인들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는 중국 지역으로부터 건너왔다. 이슬람이 뿌리를 내리는 방식도 독특하다. 자바의 토속신앙과 풍습을 일컫는 **크자웬(Kejawen)**과 이슬람이 혼합이 되는 방식으로 이슬람교가 안착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무슬림은 대체로 힌두·불교적 요소와 토착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낭까바우(서부수마트라) 지역은 모계사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발리 섬 동쪽에 위치한 롬복섬 사삭족의 무슬림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종교적 관습이 남아있다.

자바 무슬림 중 다수는 ‘아방안’ (Abangan)이라 불리며 토착 신앙적 요소와 이슬람을 결합한 독특한 신앙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 전파되던 시기에 지역 문화와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융합된 결과이다. 한편 1912년 이슬람단체 무함마디야가 설립되면서 정통 이슬람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전개되면서 독실한 이슬람교도라고 할 수 있는 산뜨리(Santri)가 확장된다.

3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가 “왜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지역이나 필리핀 등은 가톨릭이 전파되었던 반면, “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이 유지되고 기독교가 확장되지 못했을까?” 1602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를 점령하면서 식민지를 확장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는 소수의 인력과 병력으로 식민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복보다는 향신료 무역, 플랜테이션 및 광산 개발 등 경제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 중심의 실리주의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지배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적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이고 정치적 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인도네시아에는 나들라똘울라마(Nahdlatul Ulama NU)와 무함마디아(Muhammadiyah)라는 대표적인 이슬람단체가 있다. 이들 이슬람단체는 20세기 초 창립해 네덜란드 식민제국에 대항해 독립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국민국가와 민족 정체성 확립하고 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독립 후 인도네시아공화국 초기에 NU는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부와 대항하거나 협력하는 등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역할을, 무함마디아는 교육 부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이슬람 지도자들을 찾아가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한다. 이는 이슬람이 단순한 종교를 넘어 정치적 협상과 지지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서도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히잡(또는 질밥) 착용은 과거에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였지만, 현대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들이 자발적 선택으로 착용하며, 패션과 종교적 정체성을 동시에 표현한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의 종교적 자유와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회는 이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만큼 지역에 따라 자유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수마트라섬 북부의 아체 주는 공식적으로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h)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이슬람은 원리주의 또는 과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슬람화 또는 폭탄테러 등과 같은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종교적 교리나 의무를 넘어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힌두교, 불교, 토착 신앙과의 조화를 통해 형성된 독특한 모습으로, 다원성과 관용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사회, 문화 및 정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한국 사람이나 현지 한인들이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다원성과 독특함을 이해하고 이슬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현지 사회와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장 이·취임식 개최

제7대 김종헌 한인회장 취임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 지원 활동 넓힐 것”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2025년 1월 17일 10시 30분, 대사관 강당에서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제7대 한인회의 출범을 알리고 새로운 한인회장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는 한인회 임원과 한인사회 주요인사, 각계 한인동포가 참석하여 출발선 앞에 선 김종헌 한인회장과 집행부를 축하했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김종헌 신임회장은 폭넓은 활동으로 이미 한인사회에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한인회가 실질적이고 따뜻한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화합하는 한인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며, 대사관도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임하는 박재한 전 한인회장은 “지난 6년 동안 소중한 시절 인연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삶을 응원

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 인연은 언제나 나에게 귀하고 특별한 의미이며 함께 한인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라며 7대 한인회에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한인회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박재한 전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임 김종헌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인회가 한인동포로서의 유대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한인회플랫폼을 만들어 보편적인 정서로 동포들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교역할에 힘을 기울이며, 한인자녀들을 위한 장학위원회, 불우한 한인들을 위한 CSR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한다. 또한 한인들끼리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해결을 모색하는 한인중재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을 위한 지



원 활동을 넓히며, 성장 지향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종희, 양태화, 이지완, 이정호 신임수석부회장과 임성필 사무총장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신기엽 명예회장은 “제7대 한인회도 한인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화합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서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동포사회의 다양한 활동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사관 신년인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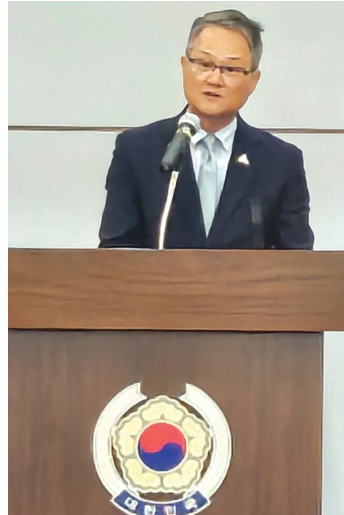
한인사회 유공자 표창 수여



김종헌 한인회장



박수덕 대사대리



이장근 아세안대표부 대사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은 지난 1월 3일, 2025년 새해를 맞아 대사관 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주인도네시아 박수덕 대사대리를 비롯해 주아세안대표부 이장근 대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2024 세계한인의 날 수상자 및 한인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한 동포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2024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김영을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수석고문은 동포 유공 표창을 받았다. 김 수석고문은 한인동포 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사 표창으로 한인사회와 경제단체에서 결속 및 화합을 위해 활약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했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며, “대사관은 우리 국익신장과 동포 사회의 권익 향상을 위해 ‘팀 코리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과 “프라보워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인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다운스트리밍 산업정책과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및 시장 확보를 조화시키기는 데 앞장설 것” 이라고 당부하며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종헌 한인회장은 “2025년은 7대 한인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한인회가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겠다.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교류 행사를 확대하여 서로의 유대를 강화할 것”과 “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현지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장근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아세안은 그간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라는 삼 대 공동체 구축의 목표를 세웠고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결정하는 해이다. 지정학적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는 외교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계획

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발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발전으로 관계 강화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재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동포 유공 표창을 받은 김영울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수석고문

신년인사회 대사 표창 수상자 명단
(본지 Page12,13)





연번	성명	직책
1 동포 유공 표창	김영울	자유총연맹 인니지부 수석고문
2	강수한	옥타 자카르타지회 사무총장
3	강재홍	땅그랑반튼한인회 언론홍보위원장
4	곽영민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태권도감독
5	김효미	자카르타한글학교 총무교사
6	김희정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무총장
7	설혜선	자유총연맹 인니지부 여성분과 부회장
8	송영한	찌가랑한인회 사무국장
9	압둘바시드 (Abdul Basyith)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 회장
10	윤한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사
11	이슬기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홍보대사
12	이윤정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13	이은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간사
14	전상일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총무
15	정제의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간사
16	천현지	반둥한글학교 교감
17	홍윤지	월드옥타 차세대 위원회 홍보부장
18	김건홍	주식회사 대상 인도네시아법인 관리이사
19	김동호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사



연번	성명	직책
20	김소은	삼천리네트웍스 과장
21	김영주	건설공제조합 인도네시아사무소장
22	도희수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과장
23	라흐미 꾸미아시 (Rahmi Kumiasih)	CGV 인도네시아 마케팅 담당
24	박성남	DL E&C 지사장
25	박세훈	인도네시아 EPS센터장
26	박의래	연합뉴스 특과원
27	박재일	중부발전 완푸수력발전소 법인장
28	박형선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 지부장
29	송호진	재인니외식업협의회 총무
30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인도네시아사무소장
31	이서영	한국전력공사 동남아지사장
32	김광무	포스코 법인장
33	이우봉	한국항공우주산업 인니사무소장
34	이재우	삼성전자 부장
35	천재운	현대캐피코 인도네시아지사장
36	홍성수	LH 인도네시아사무소장
37	홍승훈	새마을재단 인도네시아사무소장
38	홍우평	HLI Green Power 대표





부가세율 인상 시행령 PMK 131/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지난 12월 31일 부가세율 인상에 관한 시행령인 재무부장관령 131/2024 호 (PMK No.131 / 2024) 가 공포되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가세 인상 시행령은 조세조화법(UU HPP) UU No. 7 /2021 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10%에서 11%로, 2025년 1월 1일부터 11%에서 12%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법령에 따른 시행령이다.

실질적으로 사치품에 한하여 12% 이상이 되고, 사치품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이 11/12가 적용되어 부가세율이 12% 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11/12) \times 12\%$ 로 11%를 부담하게 된다.

15페이지 도표로 요약할 수 있다.

Barang Mewah(사치품) 과 Barang / Jasa Non Mewah (사치품이 아닌 재화와 용역) 으로 구분되며 부가세율은 12% 로 동일하지만 사치품이 아닌 항목은 공급가액이 수입 및 판매가의 11/12 가 적용된다.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사치품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공급가액이 수입 및 판매가의 11/12 적용되고 2025년 2월부터는 공급가액이 100%로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2025년 2월부터 12%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사치품 항목은 PMK 15/2023 및 PMK 42/2023 에 규정되어 있다.

부가세율은 2025년 1월 1일부로 12% 인상이 되었다. 단지 사치품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물품가의 11/12로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11%에 해당하는 것이다.

2024년까지는 1.1% 부가되는 부가세 항목인 운송주송업 (freight forwarding), 택배 서비스, 여행업 등에는 2025년부터 1.2%로 인상되었고 자가건설활동에 대한 부가세 (PPN KMS)도 2.2%에서 2.4% 로 상향 되었다. (중전 $20\% \times 11\% = 2.2\%$, 현재 $20\% \times 12\% = 2.4\%$)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Rangkuman

PMK-131/PMK.03/2024

Berlaku 1 Januari 2025



Chat Center Telegram @pajaksbyrungkut
Channel Telegram @infopajaksbyrungkut

Kategori	 Barang Mewah*	 Barang/Jasa Non Mewah
Tarif PPN	12%	12%
Dasar Pengenaan Pajak (DPP)	Harga jual atau nilai impor	Nilai lain (11/12 dari nilai impor/harga jual)
Impor BKP/ BKP Tidak Berwujud/JKP dari Luar Daerah Pabean	PPN dihitung dari nilai impor penuh.	PPN dihitung dari nilai lain (11/12 dari nilai impor).
Penyerahan Barang/Jasa Domestik	PPN dihitung dari harga jual penuh.	PPN dihitung dari nilai lain (11/12 dari harga jual).
Contoh	Harga jual mobil mewah Rp800 juta PPN = 12% × Rp800juta = Rp96 juta.	Harga jual sembako olahan = Rp50 juta Nilai lain = 11/12 × Rp50 juta = Rp45,83 juta PPN = 12% × Rp45,83 juta = Rp5,5 juta.
Masa Transisi (1 Jan–31 Jan 2025)	DPP menggunakan nilai lain (11/12 dari harga jual).	Tidak terpengaruh oleh masa transisi.
Setelah Masa Transisi (Mulai 1 Feb 2025)	DPP menggunakan harga jual penuh.	Tetap mengikuti ketentuan awal: DPP menggunakan nilai lain.
Pengecualian	Dikecualikan ketentuan di atas bagi PKP tertentu yang menggunakan DPP Nilai Lain atau PPN Besaran Tertentu yang diatur dalam peraturan tersendiri.	

Barang Mewah:

- Selain kendaraan bermotor sesuai PMK 15/PMK.03/2023
- Kendaraan bermotor sesuai 42/PMK.010/2022



제 7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단 상견례 및 2025 제 1차 회장단 회의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종헌)는 2025년 1월 23일(목), 오후 4시 한인회 회의실에서 제 7대 한인회 상견례와 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월 13일(목)에 열릴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을 확정하고 정관개정안과 2025년도 한인회 사업 계획 등에 관한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참석자(22명)>

회장 김종헌

수석부회장 김종희, 양태화, 이지완, 이정호

부회장 강수한, 구형희, 김문수, 김재훈, 송광택, 신지훈, 이근대, 이승수, 이주한,

이승준, 이광옥, 이상현, 장윤하, 정용완, 최지훈

사무총장 임성필 사무국장 최인실



코참, ‘2025 상공인의 날’ 열어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KO-CHAM)가 2025년 신년회를 겸한 ‘상공인의 날’ 행사를 1월 15일, 자카르타 스다유 인도 골프장(Sedayu Indo Golf, PIK)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대리와 이장근 아세안대표부 대사, 김종현 재인니한인회장 등의 내외빈과 회원사 임원 18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다. 1부 골프 행사, 2부 회장상 수여, 신태용 감독 감사패 전달, 기부식 등 알찬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장현 코참 회장은 “지난해 수입규제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참은 대사관, 유관기관과 함께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팀코리아 플랫폼을 결성하였고, 외국상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투자기업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올해도 우리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인도네시아 박수덕 대사대리는 축사에서 “2025년 인니 내 우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2025 상공인의날 개최를 축하하였다. 주아세

안대표부 이장근 대사도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한인 기업인들의 역할이 핵심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주아세안대표부도 기업인들의 애로 해소에 발벗고 나설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날 코참 공로를 기리는 회장상은 박의래 연합뉴스 특파원과 윤제웅 코참 사무차장이 받았다.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CSR 활동의 일환으로 기부식에서는 찌까랑 직업기술학교와 루마 크레아티프(Rumah Kreatif)에 각각 5천만 루피아를 기부했다.

코참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있는 해외 경제단체로 현재 270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양국 경제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5 년 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정치, 사회>

“자카르타 공무원, 일부다처 가능하다, 요건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일부다처가 가능하다는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규칙이 공표되자, 인권단체에서 반발하고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뜨구 스파야부디 자카르타 주지사직무대리는 지난 1월 6일 자카르타 (남성)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둘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주지사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행정규칙은 ‘Peraturan Gubernur (Pergub) Nomor 2 Tahun 2025 tentang Tata Cara Pemberian Izin Perkawinan dan Perceraian’에 명시되어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 소속 공무원이 일부다처를 원할 경우, 반드시 상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다처가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장애가 있거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경우 △결혼한지 10년이 됐으나, 아이를 출산하지 못할 경우 △본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처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경우 △공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 부터 일부다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자카르타 국립개발대학교(UPN) 공공정책 분석가인 아흐마드 누르 히다야트는 최근 BTV 토론회에서 “이 규정은 일부다처제를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다처제를 막기 위한

더 엄격한 요건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다야트는 “이번 자카르타 주지사 규정은 1983년에 발효된 중앙정부의 일부다처제 방지 규정을 기초로 해서 1990년에 개정된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며 “첫째 배우자의 건강증명서, 결혼하지 10년이 넘었으나 자녀가 없다는 증명서, 첫째 배우자의 동의서, 그리고 여러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입증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일부다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히다야트는 이어 “규정 발표 전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행정명령의 목적과 영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일부다처제 사례가 공무원의 혼외정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뜨구 스파야부디 주지사직무대리는 “이번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을 바탕으로 더 엄격한 요건을 추가한 것”이라며 “이 규정은 2023년부터 논의된 결과물로, 법무부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연대당(PSI) 소속 자카르타 주의회 엘바 파르히 콜비나 의원은 자카르타 주지사 행정규칙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일부다처제 관행을 허용하고 용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카르타포스트 “신태용, 인니 축구의 영원한 유산... 감사합니다”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유력 일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지난 11일자 논설에서 신 감독에게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영원한 유산, Kamsa-hamnida(감사합니다)” 라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축구협회(PSSI)가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에릭 토히르 PSSI 회장은 신 감독의 후임으로 전 FC 바르셀로나와 네덜란드 대표팀 공격수인 패트릭 클루이베르트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신 감독은 지난 5년 동안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고 소개했다. 신 감독의 갑작스러운 퇴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PSSI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신 감독 없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꿈꾸는 대표팀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의 경우, 각 조 상위 두 팀이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며, 3위와 4위 팀은 추가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호주, 바레인, 중국, 일본과의 네 경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조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신 감독 재임 기간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173위에서 지난달 기준 127위로 50계단 가까이 올랐다. 특히 신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를 2-0으로 꺾으며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신문은 “신태용 감독의 업적은 명확하다” 고 평가하며 “그는 2023년 아시안컵 본선 진출과 2020년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 결승 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통해 인도네시아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에릭 토히르 회장 역시 신 감독을

“인도네시아가 영입한 최고의 감독 중 한 명” 으로 극찬한 바 있다” 고 기술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게 된 클루이베르트 감독에 대해, 자카르타포스트는 신 감독과 성과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비교했다. 클루이베르트는 2023년 튀르키예의 아다나 데미르스포르에서 단 6개월간 감독직을 맡았으며, 그의 유일한 국가대표팀 경력은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 퀴라소 대표팀을 이끈 것이다.

신 감독의 경질 배경에 대해, 자카르타포스트는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현재 대표팀과의 신뢰 부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한 귀화 선수가 “신 감독은 전술과 경기 방식에 대해 거부했다” 고, 또 다른 선수는 “지난해 10월 중국 원정 경기(1-2 패배) 전부터 감독과 선수들 간 갈등이 시작됐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릭 회장은 “감독, 선수, PSSI 간의 단합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신 감독의 해임 이유를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클루이베르트의 대표팀 합류 후 전망에 대해, 자카르타포스트는 인도네시아 대표팀 내 비기술적(내부 갈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이어 인도네시아가 클루이베르트 감독의 지도 아래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꿈을 이루더라도, 신태용 감독이 남긴 유산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축구를 동남아시아 강호로 복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 감독이 닦아놓은 기반은 2026년 월드컵을 넘어 미래까지 이어질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진다” 라고 찬사를 보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PSSI는 인도네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신태용 감독에게 감사를 전한다” 며 “새로운 감독 클루이베르트가 성공적인 여정을 시작하기를 기원한다” 고 마무리했다.

“인도네시아, 반동에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서부자바주 주도 반둥 지역에 반둥공대(ITB)와 협력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단지를 설립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루훿 빠자히탄 국가경제 위원회(DEN)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행사에서 “ITB와 협력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훿 위원장은 인도네시아가 역내 경쟁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이미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루훿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자국의 경제 성장의 가속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과 한국의 성공적인 모델 벤치마킹

동남아시아경제연구소(ERIA) 동남아시아 수석 연구원 릴리 안 잉은 2024년 일간 자카르타글로브에 실린 기고문에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계와 산업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만과 한국을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했다.

대만은 국책 연구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을 설립해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고, 한국 역시 교육과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대학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이 협력해 숙련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릴리 수석연구원은 “아세안은 이러한 모델을 본보기삼아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문적 연구를 산업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지역은 반도체 산업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ITC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의 반도체 수출은 2018년 1,899억 달러에서 2023년 2,688억 달러로 41.6%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세계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 23.6%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카라팍, 전자상거래 사업 중단… 결제 서비스로 전환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부카라팍(PT Bukalapak Tbk)이 운영을 중단하고 공공요금 결제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부카라팍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오는 3월 2일까지 운영하고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부카라팍은 2021년 8월 기업공개(IPO)를 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주식이 급락하면서 하향세를 보였다. 부카라팍의 IPO 당시 가격인 850루피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122루피아로 85.46% 폭락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부카라팍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원할하게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공급업체, 고객들의 환불 절차와 거래 내역 다운로드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포함되었다.

앞서 토코바구스(Toko Bagus), 일레브니아(Elevania), JD.ID 등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향후 부카라팍은 전화, 수도, 전기요금 결제, 인터넷 데이터 패키지, 소비자 신용 할부, 케이블 TV 가입, 건강 보험료, 교통범칙금까지 포함하는 공공요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예정

이다. 또한 전자제품, 자동차 용품, 개인 관리 용품, 보석류 등과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해 소매업체 네트워크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부카라팍의 결정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동종업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경쟁자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있다:

토코페디아(Tokopedia): 고토(GoTo)그룹의 자회사인 토코페디아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고젝(Gojek)과의 합병으로 강력한 테크 생태계를 구축했다.

쇼피(Shopee): 싱가포르 기반의 씨그룹(Sea Group)이 지원하는 쇼피는 공격적인 프로모션, 원활한 물류, 현지화된 서비스로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라자다(Lazada): 알리바바 그룹 소유의 라자다는 강력한 물류 네트워크와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블리블리(Blibli): 현지 대기업 자룸(Djarum)이 운영하는 블리블리는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며, 중상류층 고객을 대상으로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카라팍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한 최초의 기업이었지만, 여러 경쟁사들이 테크, 물류, 마케팅에 공격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100만 고객의 선택

결과로 '증명'하는 **약손명가**

한국 12621점 해외 1621점 45년 전통 글로벌 에스테틱 브랜드



얼굴 관리



바디 관리

맞춤관리



석교 비교를 통해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느껴보세요

- 매끄러운 얼굴 라인
- 리프팅 효과로 젊고 생기 있는 외모
- 또렷한 이목구비
- 균형 잡힌 얼굴과 탄력 있는 피부.

이광고를 찍어보여주시면 2025년 2월 28일까지 5% 특별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YAKSON 1979 KOREA

Grha Tirtadi Lt. 2
Senopati, Jakarta Selatan

(+62) 8118 222 199
@yakson.indonesia



— 여기가 맛집! —

Jia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맞이는 잘 하셨나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근심, 걱정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새해 계획을 세운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네요. 2월도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과 성취를 차곡차곡 쌓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식당은 큰 둥근 원탁에 둘러앉아 즐기실 수 있는 중국 정통 딤섬집입니다..

Jia라는 곳인데요. 상그릴라 호텔 안에 있는 고급스러운 식당입니다. Jia라는 것은 중국어로 家, ‘집’이라는 뜻인데요. 안에 곳곳에 중국풍 도자기로 장식이 되어있어 중식당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명이나 인테리어는 중식당의 느낌보다는 고급스러운 호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식당 바로 옆에 호텔 외부 수영장, 산책로로 연결되는 문도 있으니 식사하시고 잠시 조경을 감상하며 산책로를 거닐며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가 넓적하고 테이블이 아주 많지만 주말에는 화교들의 조찬모임으로 붐비다 보니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리로 Peking Duck Half (269,000 루피아 ++)로 시작해 보세요. 베이징 덕인데요. 딤섬 집의 묘미는 여러 딤섬과 요리들을 시켜 맛보는 것이 재미이다 보니 한 마리가 아닌 반 마리로 시키셔서 맛보길 추천 드립니다. 베이징덕은 겉에 설탕 또는 물엿 옷을 입히고 껍질과 속살 사이에 펌프로 공기층까지 만들어서 바삭 말리는 과정을 거친 후 구워 내기 때문에 껍질이 아주 바삭하고 노릇합니다. 이것을 얇게 썰어 오이채를 비롯한 채소와 ‘바오빅’과 싸먹습니다. 한국의 보쌈과 유사합니다. 주문하면 셰프가 카트를 끌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썰어 주시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북경요리로 입안을 기름기로 먼저 적셔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리 Soupy Pork Xialongbao (116,000 ++)입니다. 샤롱바오인데요. 다진 고기를 만두피로 싸서 찜통에 찐 만두인데요. 만두 피 안에 육즙으로 가득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숟가락에 올려 작은 구멍을 내어 국물을 먼저 쪽하고 드세요. 그냥 한입 베어 물었다 가는 뜨거운 육즙이 온 사방에 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가끔 몇몇 식당에서는 빨대를 줘서 미리 육즙을 들이키기도 했습니다. 겉에 피는 야들야들해 부드럽고 안은 육즙으로 가득한 따뜻한 샤롱 바오를 추천 드립니다.

세 번째 요리로 Pork Siu Mai Tobiko (116,000 루피아 ++) 소개 드립니다. ‘샤오 마이런’ 우리가 홍콩 딤섬 스타일로 자주 볼 수 있는 밀가루 반죽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꽃 모양으로 빚어 찜서 만드는 만두인데요. 만두소로 다진 돼지고기, 다진 새우, 표고, 파 등을 쓰기 때문에 다른 딤섬에 비해 맛이 더 풍부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날치알과 통새우를 토핑으로 쓰기 때문에 안에 재료가 꽉 차 있어 영양이나 맛의 방면에서 제일 다채롭고 풍부한 딤섬이 되겠습니다. 딤섬 집에 왔다면 ‘샤오 마이런’은 꼭 시켜보세요.

네 번째 요리로 Lotus W/ Pork (158,000 루피아 ++) 소개 드립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요리인데요. 볶음 요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국스러운 요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진 무를 밀가루와 큐브 모양 케이크로 만들고 숙주, 계란, 고기, 부추 등과 함께 XO 소스에 볶아낸 요리입니다. XO 소스는 말린 조개관자, 전복, 새우등을 물에 불려 채 썰거나 다진 다음, 작게 찢은 중국식 햄과 함께 기름에 튀기듯 볶아내고, 마늘, 생강, 샬롯, 고추 등의 향신료와 같이 볶다가 설탕, 라유, 간장, 굴 소스를 넣고 졸여 완성하는 소스입니다. 해물 베이스이기 때문에 감칠맛으로 아주 좋은 소스입니다. 이 무 케이크에 XO 소스가 잘 베여서 감칠맛이 아주 좋고, 부드러운 무 케이크와 아삭한 숙주 때문에 다채로운 식감을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볶아냈기 때문에 불 향도 느낄 수 있어 중국요리의 느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요리도 시켜 보길 추천 드립니다.

그 외의 다른 다채로운 딤섬들도 많으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너무 고기가 많아서 싫으시다면 Shrimp Dumpling (116,000 루피아 ++)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찐 만두피가 지겨우시다면 튀긴 딤섬인 Crisp Beancurd Roll (58,000 루피아 ++) 또는 Wonton w/crab (116,000 루피아 ++)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덕처럼 겉을 바삭하게 구워 낸 돼지 구이도 있으니 Crispy Roast Pork (228,000 루피아 ++)도 추천 드립니다.



자카르타에서 돼지 요리 먹기가 쉽지 않으니 이 메뉴를 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 요리도 있으니 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볶음면도 같이 곁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 모임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이 식당에서 둘러앉아 덤섬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북적거리는 식탁 분위기를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오는 행복한 에너지가 새해에 좋은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만 같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앉아 맛있는 덤섬을 여러 개 시켜 나눈다면 맛도 행복도 2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새해 인사를 드린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다짐하셨던 일들은 잘 이어가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기운 내어 도전하려 합니다. 결국, 꾸준함이 승리로 이어지니까요. 독자님들께서도 2월 한 달 동안 더 큰 행복과 성과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3월에 더 맛있는 맛집 이야기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식당 정보 : Jia〉

음식 종류 : 중식

가 격 대 : Rp 300,000~500,000 /2인 기준

영업 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 2:30/ 오후 6:00~10:00

주 소 : BNI, Shangri-La Jakarta Kota
Jl. Jenderal Sudirman No. Kav. 1
Jakarta 10220

※ Google 참고





민화 제작: **최호윤** (Seoul LOFT, 한인문예총, 목향민화협회)

2025년 당신을 웃게 해 줄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당신을 더 밝혀줄 좋은 책과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스스로 내면의 불을 밝히는 방법과 만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인뉴스 편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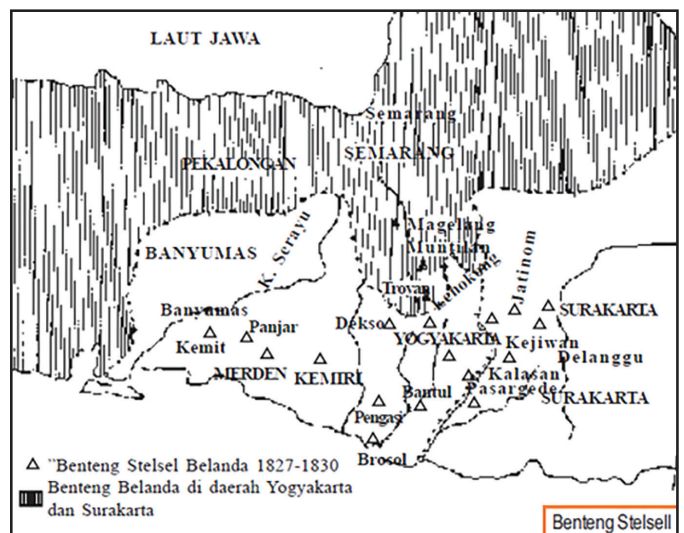
디포네고로 왕자와 지배전쟁

지난 호에 이어

드록 장군이 설명하는 동안 텍수염을 매만지거나 콧수염을 비틀며 우려 섞인 표정을 짓던 지휘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디포네고로와의 전쟁에 이미 엄청난 전비를 쏟아부어 총독부의 금고가 바닥난 상태였고 때로는 병사들 급여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쪼달렸는데 이제 사람과 물자를 몇배로 더 동원해 다수의 요새를 자바 전역에 짓고 그 요새 전부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해 운영해야 하는 스텔셀 요새작전은 더 큰 출혈적 지출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고위 지휘관들이 이 작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반란지역들이 수복되고 자바의 백성들이 농사일로 돌아와야만 비로소 세금이 다시 걷히게 될 것이요. 그러니 디포네고로군을 압박하기 위한 이 작전이 비록 당장은 큰 비용을 소모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분명 더 큰 경제적 보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요.”

드록 장군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춤춤한 요새망이 강력한 포위망 역할을 하여 적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약화된 적을 섬멸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스텔셀 요새 작전 - 삼각형은 1827-1830년 사이에 만든 네덜란드군 요새, 금으로 표시된 지역은 수라카르타 수난국과 족자 술탄국에서 이미 요새화된 지역들.

“이 작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오. 그러니 반란군과 일반 주민들을 철저히 구별하여 달리 대하고 병사들의 행패와 약탈을 일절 금지해야 하오.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시오.”

네덜란드로서는 백성들이 디포네고로군을 돕거



19세기 자바복식 (<https://kumparan.com>)

나 내통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창고, 사원에 대한 약탈을 금지하고 곡식을 빼앗거나 재산을 파괴하지 않도록 병사들을 철저히 교육시켰습니다. 약탈과 행패는 주민들의 증오와 저항만 살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디포네고로군에게 마음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터였습니다. 그래서 군은 문화적, 심리적, 경제적 선무작업을 통해 네덜란드군이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협조자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필수적이에요. 단지 네덜란드군이 직접 나서지 말고 현지 영주들 손에 피를 묻히도록 하란 말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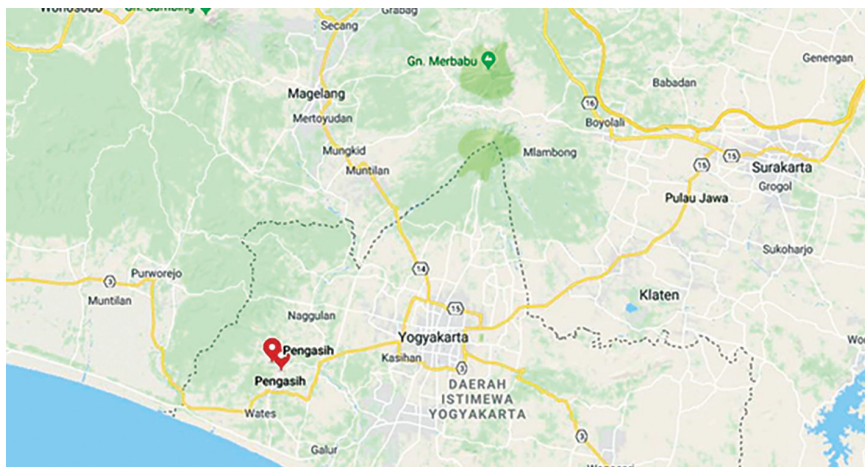
네덜란드는 그 일환으로 전쟁지역에 영지를 가진 귀족들을 압박해 해당지역 민중들의 ‘불법행위’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네덜란드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 주민들 전체에게 집단적 책임을 물어 마을을 통째로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덜란드군이 피아를 냉정히 구분해 일반 자바인들을 보호하며 오직 디포네고로군과 그 지지자들만을 대적한다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이 작전은 적잖은 효과를 보여 디포네고로군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지원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벤벡 스텔셀 작전이 주효해 움직임이 제한된 디포네고로군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기동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포네고로군의 게릴라 전술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 드콕 장군의 부대는 디포네고로군을 추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며 자바 전역에 약 200개의 요새가 건설되어 통신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자 그 통신로를 넘으려는 디포네고로군 부대들의 시도가 쉽게 발각되고 또 좌절되기도 하면서 그간 유기적이었던 디포네고로군 각 부대간 통신과 연계가 깨졌고 정보력도 극히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의 강점을 잃게 된 디포네고로군은 웅아란(Ungaran)을 시작으로 스마랑의 지방총독청 전투에서도 패전을 겪으며 많은 병력과 지휘관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스텔셀 요새작전이 곧바로 네덜란드의 승리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도 네덜란드는 꺼두 지역의 여러 전투에서 고전했고 특히 반유마스에서는 디엘 중령, 드보스트 중령(letkol de Bost) 등 베테랑 지휘관들을 잃는 등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족자 남쪽방면에서는 1827년 6월 21일 족자 지방총독 반 로윅(Van Lowick)이 노또쁘로조 왕자(Pangeran Notoarjo)와 세랑 왕자를 밀어붙여 마침내 항복을

언어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전쟁 초반 눈부신 활약을 했던 세랑 왕자를 잃은 것은 디포네고로군에겐 큰 손실이었습니다.

지리한 접전 끝에 1827년 10월 10일 이후 휴전이 발효되어 일단 전투가 멈추었지만 종전협상은 매번 결렬되었습니다.



땡아시

“자바땅에서 네덜란드 민간인들의 상업활동을 인정할 테니 군대는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것이요!”

“반란군의 무장해제가 선행하지 않는 한 총독부는 반란군의 그 어떤 요구도 수용할 수 없소.”

이렇게 갑론을박이 계속되었지만 어쨌든 휴전이 유지되던 시기에 디포네고로 왕자는 군세를 추스르며 본진을 땡아시 인근 삼비라타(Sambirata)로 옮기고 그곳에 이슬람 자바 왕국의 끄라톤 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벤벡 스텔셀 전술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운 요새들을 강화한 네덜란드군은 디포네고로군을 충분히 옥죄 수 있다고 판단되자 삼비라타 끄라톤 궁전 완공식을 기해 일방적으로 휴전을 깨고 기습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를 사로잡으려는 목적이었죠. 자신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매번 일방적으로 휴전을 깨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덜란드군의 행태는 비단 디포네고로 전쟁에서뿐 아니라 훗날 1945년 이후 5년간 벌어지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도 몇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삼바리타는 불바다가 되었지만 디포네고로 왕자는 땡아시로 피신했고 전쟁은 또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상은 디포네고로군이 일방적으로 승승장구하던 전쟁 초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1828년이 밝으면서 노술탄 하명꾸부위노 2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8년 1월 3일 77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족자 끄라톤에서 마감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디포네고로군도 애도

를 표했고 망꾸부미 왕자 역시 적진 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부음에 마음 아파 했습니다.

“디포네고로, 그 녀석은 내가 끄라톤에 돌아왔다 해도 금방 약해져서 전쟁을 그르칠 놈이 아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고향땅에 돌아온 하명꾸부위노 2세는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의 회유공작에 빚미가 된 셈이지만 애당초 디포네고로의 동기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뼈나감으로 유배를 간 1813년 이후 사랑하던 장손자 디포네고로와 그 진영에 속한 후손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유명을 달리 하고 이 모기리의 묘역에 묻혔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1월 17일 하명꾸부위노 5세가 다시 술탄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처음 왕위에 올랐던 1823년엔 천진난만한 세 살박이 영아였지만 이제 두 번째 다시 왕위에 오른 그는 야박한 세상인정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소극적이고 조심성 많은 여덟 살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국의 최고봉에 섰지만 세상은 그에게 무섭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인 하명꾸부위노 2세는 자신을 폐위시켰고 삼촌인 디포네고로 왕자는 끄라톤을 호시탐탐 노리는 무서운 적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다누레조 2세 재상으로 대변되는 끄라톤 궁전의 신료들, 귀족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했고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네덜란드



마글랑 네덜란드군 본진

군은 든든하기보다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궁전에서 어린 술탄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군은 1828년에 보다 전략적 요충지라 판단한 마글랑으로 그 본진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농민군의 저항을 보다 손쉽게 격퇴할 수 있는 전략적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군은 보다 현대화된 무기로 전력을 보강했고, 동시에 디포네고로군의 지휘관들에게 끄라톤 궁전의 자리를 보장하며 적극적인 회유작전에 나섰습니다.

1828년 4월 18일에는 망꾸부미 왕자의 아들인 나타디닝랏 왕자(Pangeran Natadiningrat)가 네덜란드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망꾸부미 왕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1828년 말엔 빼낭구한(Penangguhan)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져 네덜란드군과 디포네고로군 사이에 심대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네덜란드 측에선 반잉겐(Van Ingen) 대위와 프랑웨다나 왕자(Pangeran Prangwedana)가 전사하고 디포네고로군 측에서는 최정에 만티레조 부대(Pasukan Mantirejo) 사령관이 전사하고서야 서로 군대를 물렸습니다. 1828년 내내 디포네고로군은 왕자들이 속속 전사 또는 체포당하거나 투항하면서도 네덜란드군과 대체로 호각을 유지하며 큰 편치를 주고 받았습니다.

1829년 초 이번엔 네덜란드 측에 변동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임총독으로 요하네스 반 덴 보쉬(Johannes van Den Bosch)가 부임해 그동안 디포네고로군을 야금야금 약화시켜온 드콕 장군을 해임하고 벤야민 비숍 소장(Mayor Jendral Benyamin Bisschof)을 네덜란드 동인도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저런 미개인들을 상대로 몇 년씩이나 전쟁을 끌다니 우습지도 않은 일입니다. 한 달만 주시면 디포네고로군의 주력을 완전히 와해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1829년 5월 13일 총사령관에 취임한 비숍 소장은, 그러나 뭔가 능력을 보여주기에도 전인 6월 7일, 부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짜안주르(Cianjur) 전투에서 디포네고로군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게릴라 전술에 걸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의 전사가 몇 주만 늦었다면 전임사령관 드콕 장군은 이미 본국행 범선을 타고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짐을 다 싸고 귀국준비를 하던 드콕 장군은 갑작스러운 신임사령관의 전사로 급히 다시 전선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서는 이 지긋지긋한 자바 전쟁을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어찌면 그는 디포네고로 왕자와 운명적 악연으로 얽여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디포네고로군은 바글렌과 반유마스에서 네덜란드군을 압박했고 죽자 남쪽 방면에서는 베이 왕자의 농민군이 네덜란드의 요새와 초소들을 공격했습니다. 네덜란드군은 술라웨시, 말루꾸, 발리에 주둔하고 있던 나머지 군대들도 모두 자바로 불러들였고 유럽 본토에서도 병력을 충원해야 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한방

지난 호에 이어

생활한의학 5

양한방의 결합

25년 전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중국은 이미 ‘중서의결합과’ 라는 학과가 있었고, 한방병원에서 MRI, CT,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양약처방, 일반 주사요법, 정맥 주사요법, 외과수술, 방사선치료 등 양방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 동일하게 아무런 제재없이 합법적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방과 양방이 엄격히 분리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의학도 실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산당의 창시자 마오쩌둥이 남긴 말 중에 “흰색 고양이든 검은색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실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지켜본 중의병원(=한국의 한방병원)에서는 의사의 4진(전통한의학4편 참고)을 통해 일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X-ray, 혈액검사, CT 검사 등을 추가로 받은 뒤 결과를 종합하여, 침치료와 한약처방 + 양약처방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였습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대부분 양방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만성적인 담낭결석, 장중첩증, 치질 등 난이도가 높지 않은 수술들은 중의병원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 한방병원에서는 보기 드문 간염, 암, 심장병, 신부전증, 폐결핵 등 중증환자들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대학 강단에서 수업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병원진료도 같이 보는 시스템이라 본과와 실습과정에서 많은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약과 양약을 같이 복용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해도 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시간 간격을 1-2시간 거리를 두고 복용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디 전통의학은 만성질환에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고, 서의는 급성질환, 응급환자 치료에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결합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치료하니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한국도 조금씩 한방과 양방을 결합하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아래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의학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철학 및 이론>

- ◆음양오행론: 우주와 인체의 모든 현상을 음과 양, 그리고 다섯 가지 요소(목, 화, 토, 금, 수)를 기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氣): 생명의 근본이라 여기고 있으며,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중요시하고, 온 몸에 분포되어 있는 기의 불균형이 질병의 원인이라 봅니다.
- ◆장부변증론치(藏府辨證論治): 내부 장기와 그 기능을 중시하고, 각 장기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치료방법>

- ◆침술: 인체의 경혈에 침을 놓아 기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 ◆한약: 자연에서 유래한 약재를 조합하여 개개인의 환자 체질에 맞게 처방합니다.
- ◆뜸: 뜸을 사용하여 경혈을 뚫어주고, 기와 혈의 순환을 촉진합니다.
- ◆추나요법: 손과 여러 인체부위를 사용하여 경혈을 마사지하여 뭉친 곳과 정체되어있는 기혈순환을 자극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 ◆기공: 호흡과 운동을 통해 내부 에너지를 조절하고 보충합니다.



<진단방법>

- ◆생활한의학4 참조

예방중시

- ◆균형과 조화: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운동, 취미, 명상, 교류 등을 통해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생활패턴을 만들어 감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영위해 나갑니다.

- ◆계절과 환경: 계절과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인체는 변화하고 적응해 나갑니다.

계절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수면패턴이나 음식섭취와 운동방법 등을 바꾸어 행함으로써 건강한 인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서양의학 (Western Medicine)

<철학 및 이론>

◆과학적 접근: 질병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험과 연구를 통해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장기간의 추적 관찰로 누적된 객관적 데이터를 신뢰합니다.

인체 각각의 장기를 기능과 역할로 세부화 하고, 시스템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치료방법>

◆약물치료: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물을 사용하여 병을 치료합니다.

◆수술: 수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거나 교정합니다.

◆방사선 치료: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재활치료: 신체 기능의 회복을 돕기 위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포함합니다.

<진단방법>

◆혈액검사: 혈액을 분석하여 질병과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영상검사: X-ray, MRI, CT 등을 통해 내부 장기의 상태를 시각화합니다.

◆유전자 검사: 유전적 요소를 분석하여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연구합니다.

치료중시

◆정확한 진단: 현대 기술을 이용해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응급치료: 급성 질환과 중증 질병에 대해 신속한 치료를 제공합니다.

각 의학 체계는 독자적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통합의학적 접근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의 병원실습 과정에서 심혈관병동, 암병동, 소화내과, 호흡내과, 내분비과 등 여러 과를 돌아다니며 공부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환자분들의 사망 장면일 것입니다. 바이탈 사인(vital sign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혈압, 맥박, 체온, 호흡, 동공 상태, 산소포화도 등)이 불안정하여, 여러 주사제와 심폐소생술 그리고 전기 충격기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환자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간경화로 사망하신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횟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끝은 모두 각혈(피를 토하는 것)을 하시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아직도 거즈에 남아있는 핏자국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잘되어야 예전같이 기력과 기능을 인체가 수행 할 수 있는데,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이 잘 안된 경우, 한방치료를 병행하면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침과 뜸 한약은 수술 후 수술부위의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멍쳐있는 조직이나 어혈을 풀어 주고, 부족해진 에너지와 혈액을 보충함으로써, 신체 기능을 복구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암환자의 경우, 방사선요법과 한약요법을 병용하는 목적으로 첫째는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서 치료효과를 증강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것이며, 셋째는 방사선치료 후 효과를 견고히 하고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여 장기 생존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화학요법은 전신적인 요법으로 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학약물은 선택적 작용이 부족하고, 독성이 비교적 커서 신체의 면역기능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이 장기간의 독성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한약과 화학요법을 적절히 병용하면 치료효과를 높이고 화학요법 약물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인도네시아 할아버님께서 위암 판정을 받고 위절제술을 받으신 후 기력이 약해 약물치료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죽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가스차고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우선 식사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한약 복용 후 입맛을 되찾으시고 전보다 속이 많이 편해 지셨다며 좋아하셨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기력을 되찾으시고 회사에 다시 출근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시 병원에 약물항암치료 받으시러 가시고 다시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질병관리는 치료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고통받는 시간을 줄여주어 환자분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서의와 전통의학이 명확히 분류되어 있고, 의사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 동양과 서양의학의 만남에 대한 고민은 적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트렌드는 전통의학과 양의학의 콜라보를 통한 치료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AI가 단시간에 신약물을 개발하고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가 가까워 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연에서 유래되고 추출되는 물질을 이용해 치료와 항노화, 병의 예방을 꾀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작용 없는 천연성분을 이용한 미용과 회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더욱더 이러한 콜라보는 가속화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방과 한방은 분명 각기 다른 성격의 치료방법과 진단방법 그리고 다른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무엇이 더 좋다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작용을 줄이면서 인체의 치유회복 속도를 높이는 연구는 분명 계속될 것입니다.

韓方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골프 상식

골프 연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오늘도 파란만장한 서사를 쓰며 18홀을 돌고 오셨나요?

골프는 정말 매력적이지만 어렵고, 꾸준함과 섬세함이 요구되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18홀 동안 일관성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골프 해설자로 나선 박세리 프로는 **"하루하루가, 전 홀과 지금이 다른 게 골프다"**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이 어려운 골프를 즐기려면 무엇보다 많은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연습량이 부족한 주말 골퍼에게는 조금 더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드라이빙 레인지, 실내 스크린 골프의 인조잔디 매트에서 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습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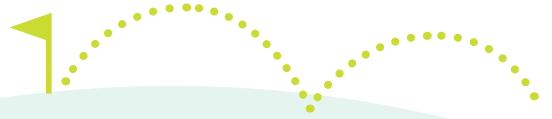
빈 스윙 - 인조잔디 매트 - 천연잔디

골프 빌런을 만드는 빈 스윙 연습은 집, 연습장, 골프 코스 등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어서 부족한 연습량을 보충할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빈 스윙 연습을 예찬하는 투어 프로들은 빈 스윙 연습으로 스윙폼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스윙 단계별로 올바른 자세와 동작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과 동일한 스윙을 하면서 스윙 리듬, 템포, 스윙 궤도에 집중하고 루틴을 익히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스윙 7 단계]

- >> 어드레스 (Address)
- >> 테이크 어웨이 (Take away)
- >> 백스윙 탑 (Top of Backswing)
- >> 다운스윙 (Downswing)
- >> 임팩트 (Impact)
- >> 팔로우 스루 (Follow through)
- >> 피니쉬 (Finish)

모두의 연습장, 인조잔디 매트가 있는 드라이빙 레인지는 자동 타석보다는 아날로그 연습장을 추천드립니다. 실전 라운드에서는 샷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스윙 연습보다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습해야 다양한 자연환경의 변수와 동반자의 구찌가 있는 라운드에서 집중력을 높여 샷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언 샷 연습 시 인조잔디 매트는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조잔디 매트에서 클럽헤드가 매트를 때리는 순간 공이 살짝 튀어 오르고, 클럽 헤드가 대체적으로 매끄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은 아마추어 골퍼의 뒷땅 샷도 대부분 잘 맞은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아이언 클럽헤드의 스위트 스폿에 골프공에서 묻어 나오는 흰 자국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다면, 올바른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올바른 임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샷을 할 때마다 실전과 동일하게 공 뒤에서 임의의 목표지점에 에이밍을 하고 루틴을 지키면서 빈 스윙으로 스윙 궤도, 리듬, 템포를 확인한 다음에 샷을 하는 것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카르타의 몇몇 드라이빙 레인지에서는 100~200개의 공을 구입하면 시간제한 없이 여유롭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글라빠 주스도 한잔하면서 말이죠.

인조잔디 매트에서 충분한 연습이 되었다면, 천연잔디에서 샷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연잔디에서는 샷을 할 때마다 샷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 매트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적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르 향의 리버 사이드 골프장에는 인조잔디 매트가 없고 오로지 천연잔디로 구성된 드라이빙 레인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땀벌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불편함은 다소 있지만 천



연잔디라서 실전 라운드와 동일한 환경에서 샷을 해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레인지 옆에는 어프로치, 퍼트, 벙커 샷 연습이 가능한 그린과 벙커가 있으며, 짧은 숏게임 연습도 가능합니다. 투어 프로들처럼 디봇자국을 확인하면서 연습을 해보고 싶다면 가벼운 먹을거리와 음료를 준비해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리버사이드 드라이빙 레인지로 가보세요.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드라이빙 레인지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지만 라운드 전날에는 연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조잔디 매트에서 잘 맞으면 다음날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기분이 업 되고, 어깨가 잔뜩 올라가 다음날 플레이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기분으로 샷을 하면 헤드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 탑볼도 많이 나고, 방향성도 나빠집니다. 꼭 연습을 하고 싶다면 라운드 당일 일찍 가서 짧게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골프장에서는 1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나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신년회 및 주니어 평통 출범식



2025년 1월 7일 화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신년회 및 주니어 평통 출범식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다.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박수덕 대사대리를 비롯한 내외빈 총 38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제의 간사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한 해의 시작을 함께하며 협의회의 발전과 목표 달성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주니어평통 출범식과 자문위원 공로패 전달식이 주요 행사로 진행되었다. 공로패를 수상한 위원은 홍종서 부회장 외 13명에게 주어졌다. 이번 주니어평통 임명식은 행사 중 가장 기대가 되는 행사식순 중 하나였다. 주니어평통은 통일 미래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청소년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리더의 자질을 갖춘 인도네시아 현지 거주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문위원 공로패 전달식도 진행되어, 2023년부터 제21기 위원으로 위촉되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위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이 공로패는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수여되었으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세호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2025년에는 보다 많은 대한민국과 동남아남부협의회와의 도약하는 공공외교를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나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의 발언은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신년회 및 상견례는 동남아남부협의회와의 단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민주평통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통일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달 26일, 감독으로서의 인도네시아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출국했다. 출국 전 신태용 감독은 한인 뉴스를 통해 5년 간의 소회와 그동안 성원해 준 한인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저의 목표가 월드컵 본선 출전이었는데 그 목표가 거의 90%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선수들에게나 팬분들에게 100%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사기나 기량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여서 좋은 결과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감독은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자마자 코로나라는 악재를 겪으면서도 인도네시아 2020년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준우승, 같은 대회에서 2022년에는 4강에 올랐고, 2024년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이끌던 한국을 8강에서 꺾으며 인도네시아를 올림픽 출전 가능국으로 급성장시키는 등 뛰어난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을 2026년 개최될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올려놓은 상태다. 조 2위까지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지는 이 대회에서 인도네시아는 현재 2위와 승점 1점 차이의 3위로 사상 첫 본선 진출을 노릴 수 있다.

처음 인도네시아 도착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코로나 사태로 백신도 없이 선수들도 새로운

질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던 상태여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뒤숭숭한 팬더믹 분위기에 선수들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한 2년간 그런 시기를 잘 견뎌주고 또 버텨주고 훈련을 잘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것을 좋아해서 인도네시아의 기후도 잘 맞았고, 문화적 차이, 음식, 여러가지 생활 분야에 인도네시아 정부나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편하게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언어 부분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어와 영어 통역이 여럿 있었고, 제 생각을 선수들이 100% 전달 되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선수들이 저에게 장난도 많이 치고 편한 형처럼 대할 때, 내 진심은 다 통했구나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선수들과 물장난도 많이 치고 생일날 케이크 세례도 받고 선수들과 갑작스런 이별을 맞았지만,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그가 선수들과의 갑작스런 이별은 팀 전체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선수들이 많이 놀라고 아쉬워하고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우리 선수들이 아프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또 잘해주리라 믿습

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을 월드컵 무대에 한 번 꼭 서 보게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꼭 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하고 격려해줬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웠다는 인도네시아 팬들도 있을 정도로 ‘한국을 인도네시아에 알리는데 큰 공로자’ 이기도 한 신감독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만 513.9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신감독과의 이별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들의 인사에 일일이 답을 못하는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신감독은 5년의 인도네시아 생활을 돌아보면 자신이 오롯이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을 위해 집중하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변 분들과 한인동포들의 관심과 애정이었다고 전했다.

초창기 힘든 적응기간에 청담 배사장님, 설악추어탕 홍사장님, 두 분이 저와 코치진들의 밀반찬부터 음식을 참 잘 챙겨주셨습니다. 이강현 코참 회장, 성예식 회장, 송창근 회장, 김종현 회장, 이종호 회장, 민영기 회장, 강호성 회장 등 정말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근에서 저를 도와주셨고, 또 많은 한인동포들에게 뜨거운 성원과 응원을 받아와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인도네시아 제7대 한인회장에 취임한 김종현 회장을 축하하며 젊은 패기와 추진력으로 전대에 못지 않는, 더 발전된 한인사회를 이끌어 주리라는 믿음을 전하기도 했다. 신태용 감독은 한국에서 구정 연휴를 가족들과 보내면서 당분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제 PSSI(Persatuan Sepak Bola Seluruh Indonesia) 소속이 아니니 골프도 마음 편하게 치러 다니고 못 만났던 지인들도 만나며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당분간 축구감독은 휴업입니다. 휴업!

당분간 축구 감독은 휴업을 하겠다면 호탕하게 웃은 신태용 감독은 사실 인도네시아에 축구장학재단(STY Foundation)과 축구교실(Shin Tae Yong Football Academy : PT. STY Akademi Olahraga)을 열어둔 상태여서 자주 왕래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에게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들, 요런 점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좋겠다 했던 축구 조기 교육을 해보고 싶어서 인도네시아 축구 협회와 협의를 거쳐 만든 건데, 앞으로 자주 와서 직접 들여다 보고 점검하고 함께할 생각입니다.

머무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축구 발전을 위해 밤낮없는 열정을 보여왔던 신 감독은 인도네시아의 축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11월, 일본전에 한인 분들이 인도네시아와 한 팀으로 단체 응원도 해주셨던 것도 신태용이라는 사람을 믿어 주셨기 때문인데, 신태용이 인도네시아 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떠나서 정말 아쉽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축구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인도네시아 축구가 크게 성장하면 ‘그 뿌리를 신태용이 만들어놨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은 제가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주시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인터뷰 진행: 조은아 편집위원)





케이스타일허브(K-Style Hub) 대표이사 박윤정

인구 2억 7,550만 명이 거주하는 무한한 기회의 땅, 인도네시아. 붉은 적도의 땅에서 당당히 자리잡은 젊은 사업가들의 성공 사례가 미래의 CEO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인터뷰 2.0] 영 비즈니스리더 칼럼을 기획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K-뷰티와 K-라이프스타일의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케이스타일허브의 비전과 전략을 탐구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성공적 시장 진출과 현지화 노력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케이스타일허브가 K-뷰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개척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통찰을 하게 될 것이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 케이스타일허브는 K-뷰티를 넘어 K-라이프스타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수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선, 한류가 단순히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죠.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K-뷰티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로 확대

되는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단순히 뷰티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차별화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K-뷰티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저희는 K-라이프스타일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함으로써 독특하고 포괄적인 가치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에 주목했습니다. MZ세대부터 Z세대에 이르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AI 기반 서비스와 오프라인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Q. 플래그십 스토어 ‘언니스픽(UNNIS Beauty curator)’이 소비자들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특별한 경험과 가치는 무엇인가요?

‘언니스픽’ 플래그십 스토어는 동남아 고객 중 첫 번째 대상으로 인니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K-뷰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오픈했어요. 이러한

오프라인 경험은 ‘언니스’ 앱과 연동되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K-뷰티 경험을 제공합니다. ‘언니스’ 앱은 AI 기반의 개인화된 뷰티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판 뷰티 앱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국내 화장품을 추천하고 리뷰 영상을 분석해 맞춤형 영상을 제안하며 제품 구매까지 가능하게 한 자체 개발한 앱입니다.

특히 저희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의 재미있는 점은, 소비자 누구나 뷰티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장에서 모든 제품의 리뷰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라이브룸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K-뷰티의 매력을 직접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언니스’ 앱을 통하거나 다른 소셜 미디어(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되어, 더욱 풍부한 K-뷰티 정보 생태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언니스픽’은 ‘언니스’ 앱과의 시너지를 통해 단순한 쇼핑을 넘어 K-뷰티를 온전히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직접적인 체험과 앱을 통한 개인화된 서비스가 결합되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맞춤형 K-뷰티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첫 오프라인 매장 ‘언니스픽’을 자카르타 세노파티에 오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세노파티는 오래전부터 자카르타에서 한국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중산층 이상의 소비력 있는 고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K-뷰티 제품의 주요 소비층과도 잘 맞는다고 봤죠. 세노파티는 또한 다양한 국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미식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트렌디한 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도 모여있어, 자기 관리와 라이프스타일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마치 한국의 성수동 같은 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Q. 제주 특별관과 AI 기반 개인 맞춤형 제품 추천 서비스 등, 기술과 문화를 융합한 시도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대표님께서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전하고자 하



는 경험과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케이스타일허브는 한국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 특별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제주도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제품들을 소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서울경제산업진흥원(SBA),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전북TP 등 다양한 정부 관련 기관들의 인도네시아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뷰티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유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성분을 활용한 뷰티 제품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제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여 각 고객의 개성과 니즈에 맞는 최적의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뷰티 경험’의 핵심으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만족도 높은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Q. K-뷰티 플랫폼 ‘언니스(UNNIS)’를 운영하는 케이스타일허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에 선정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성과가 케이스타일허브와 ‘언니스’ 플랫폼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팁스(TIPS) 선정에 대해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의 체계적인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활용해 성장해왔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3년 연속 선정 및 졸업을 하면서, 작년 R&D 사업으로 개발 인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연이어서 이번에 팁스까지 선정되었습니다. 하여 더욱 전문적



인 뷰티 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팁스 선정을 통해 저희는 국내 뷰티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솔루션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뷰티 기업들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케이스타일허브는 K-뷰티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이번 팁스 선정을 계기로 케이스타일허브와 '언니스'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K-뷰티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팁스 선정으로 개발할 솔루션을 통해 인디 브랜드들도 대기업/중견기업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한 브랜딩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는 해외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뷰티 산업이 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해,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글로벌 K-뷰티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K-뷰티의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하고, 동시에 한국 뷰티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케이스타일허브는 K-뷰티의 세계화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Q. 케이스타일허브가 인도네시아 대학교들과 산학협력력을 맺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요 목표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뷰티 비즈니스에서 Z세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대학생들과의 협력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돼요. 인도네시아 대학들은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 인턴십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은 해외 기업 경험을 선호합니다. 이런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협력을 시작하게 됐죠. 이를 통해 저희는 현지 시장 분석, 트렌드 이해 등의 도움을 받고, 우수한 현지 인재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턴십 후 정식 채용된 학생들이 지금 핵심 인력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런 협력은 저희에게 현지 시장 이해와 인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Q. 한국 대학들과 협력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강점이나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K-뷰티와 K-콘텐츠는 인도네시아 젊은 인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채용 공고 1개 자리에 6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젊은 인재들은 미래의 잠재 고객이자 K-뷰티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선발하고 교육하여 K-뷰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뷰티 강국으로 성장했을 때를 대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양국의 뷰티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Q. 박윤정 대표님께서 한국 Z세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동남아 시장 전략에 반영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한국 대학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나요?

저희 케이스타일허브 한국 본사에서는 한국의 Z세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동남아 시장 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대학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대학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한국외대, 서울여자대학교, 강남대학교 등과 산학협력을 맺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실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주고, 그 프로젝트를 가장 잘 해결한 팀의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요. 하나는 K-뷰티 산업에 특화된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Z세대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우리의 동남아 시장 전략에 반영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과 협력할 계획이에요. 이를 통해 K-뷰티의 글로벌화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Q.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서 인도네시아를 넘어 다른 동남아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산학협력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동남아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치 힙합이나 R&B가 흑인 문화의 뿌리가 된 것처럼, 한국의 음

악, 콘텐츠, 뷰티 문화도 동남아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과정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글로벌 K-뷰티 교육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동남아 전역에서 K-뷰티 문화를 전파하고, 현지의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케이스타일허브가 동남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성장해 동남아판 ‘올리브영’을 넘어, 대표 글로벌 뷰티 기업으로 상장까지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지난 9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 진행한 제주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쇼케이스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현지 바이어나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반응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9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한 제주 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 쇼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브랜드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각국의 시장 특성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각 국가별로 파트너사와 얼라이언스(Alliance)를 맺어, 브랜드사들이 여러 동남아 국가를 동시에 타겟팅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브랜드의 경우 자카르타, 양곤, 싱가포르에서 동시에 라이브 커머스, 팝업 스토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퍼포먼스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죠. 디지털 마케팅 관점에서는 주요 KPI로 CTR(클릭률), CPC(클릭당 비용), CVR(전환율), ROAS(광고 투자 수익률) 등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특히 숏폼 콘텐츠



의 engagement rate와 라이브 커머스의 viewer retention time도 중요한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브랜드의 국가별 선호도를 파악하고, 가장 반응이 좋은 시장부터 순차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식약청 인허가부터 수출, 유통,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첫째, 과감한 도전 정신을 가져보세요. 저는 15년 전, 인도네시아어 구사 능력도, 현지 연고도 전무한 상태에서 단돈 300달러를 쥐고 자카르타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정부분의 월급을 모아 소형차를 구매한 후, 운전기사 고용 비용을 절감하고자 직접 핸들을 잡고 퇴근 후나 주말마다 도시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얼핏 무모해 보일 수 있으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단력과 용기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문화 융합의 선구자’가 되세요. K-뷰티와 K-콘텐츠는 단순한 일시적 유행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가 앞서 언급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이러한 ‘문화적 감각’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컬처 센스’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추세요. 인도네시아는 다양성의 나라입니다. 각 지역의 ‘로컬 텍스처’를 이해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유연함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세요. 동남아 각국의 특성을 이해하면서도, 국제적 기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존중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직접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열정, 노력, 그리고 약간의 모험심... 여기에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더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무기인 K브랜드, 즉 한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실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 여전히 이 목표를 향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인터뷰를 앞두고 상당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저희의 여정이 진행 중이고, 완성된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저희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개신창래(開新創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고, K-뷰티와 K-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도약

몸을 잔뜩 웅크린다는 것은
누구보다 곧게 펴졌다는 신호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할 때 만개할
노오란 희망 한 송이 그리며 도약

꿈은 마리지,¹⁾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마리오.²⁾

1), 2)슈퍼 마리오의 캐릭터

이미지, 글: 김동환

사계의 섬, 아이슬란드

김준규(한국문협 인내지부 회장)



아이슬란드는 원시 형태의 지각 구조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진과에 물결처럼 굴곡진 원시 형태의 돌무더기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그 위를 연두색 이끼가 뒤덮고 있다. 아메리카와 유럽의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으로 아이슬란드는 지금도 대형 화산과 지각변동이 심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 곳곳에 온천이 산재해 있고 팔죽처럼 부글부글 끓는 회색빛 노천이 지천이다.

불과 15일 간의 짧은 여행 중에 별천지에 온 듯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로 인하여 준비해간 사계절 옷을 수시로 갈아입어야 했다. 봄처럼 따뜻하고 들꽃이 만발한 돌산 사이사이로 빙하에서 녹은 폭포수가 푸른 옥양목 천을 휘두르듯 넘쳐흐르고 낮은 개천으로 유입된 맑은 물은 빙하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을 둥둥 띄우며 격랑의 바다를 향하여 흐른다.

지축을 가르는 물줄기
푸른 하늘에 피는 목화 꽃

몽울지는 포말은

허공에 곱새춤을 추며
길 잃은 들새가 되어
너울너울 날아간다

광원에

시간은 빙하처럼 쌓여
기저에 혼절하고
드러누운 시신

썩지 않는 혈관의 응기

춤을 추며 용솟음치다
지치면 바람을 품고

낙수는 눈물이 되어
포효하는 지신의 숨소리

억겁의 고뇌는
터지는 분노가 되어

— 인용시 「간혈천」 시집, 낙엽의 귀향에서



레이카달뤼르('김이 나는 계곡')

북쪽으로 4박 5일을 달리는 동안 지각판(아메리카판과 유럽판의 경계)이 켜켜이 벌어져 빙하수가 고인 계곡을 지나 화산암이 파도처럼 뒤틀리다 멈춘듯 한 검고 기괴한 암석 지대를 벗어나 평원과 함께 수십 미터를 솟구치는 간헐천 부근에서 1박을 했다. 간헐천의 신기한 광경을 땀 흘리고 구경하는 동안 아내의 등짐에 넣어둔 비상금 5천 원을 몽땅 털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낯 나간 여행객을 상대로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황당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이번 여행의 의미가 주눅 들지 않도록 나는 아내를 위로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또한 진한 추억으로 남으리.

얼마를 달렸을까? 드디어 혹독한 겨울 지대를 맞이하였다. 푹푹 빠지는 눈을 밟고 돌무덤 사이로 한참을 걸어가니 100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얼음폭포의 장관이 나타난다. 꿈꿨던 얼어붙은 겨울의 풍경이 정지된 채 빛이 닿지 않는 잿빛 행성처럼 을씨년스럽다.

아이슬란드 최북단에서 겨울 나라를 체험하고 반환점에서 다시 시작된 하행 길도 5박 6일의 긴 여행이었다. 도중에 여러 지역을 답사하고 마지막 도착한 곳은 우리의 가을처럼 서늘하고 푸른 풀밭이 펼쳐진 들녘이었다. 노독으로 긴장된 몸을 미끌미끌한 노천온천에서 피로를 풀기도 하고, 미백에 좋다는 자연 로션을 몸에 바르기도 하였다. 호텔 앞에는 드러눕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폭신평신했던 풀밭이 끝 모르게 펼쳐져 있었다.

이제 신비의 섬 아이슬란드 여행은 끝났다.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는 냇다 지구를 끌어안으며 뒹굴었다. 초등학교 시절의 뽀빠질처럼 “요이, 땅!” 도 질러보고 일등, 이등, 삼등, 등수도 매기며 실컷 웃었다. 어떤 부인은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열심히 달리기도 하였다. 일생에 다시 만나 볼 수 없는 사계의 섬 아이슬란드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보는 것도 생애 최초의 순간이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에게 의례란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겨울은 의례의 계절입니다.

가족, 회사, 종교 단체, 사회 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가 송년회를 개최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공연과 음식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신앙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을 포함한 많은 기관과 기업은 신년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한 학년을 마치는 종업식, 한 과정을 마치는 졸업식을 거치며 다음 단계로 도약합니다. 교회와

성당에서는 매주 일요일, 이슬람사원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만세 삼창이 진행됩니다. 작게는 식사 전 감사 기도를 드리거나, 정월대보름에 오곡밥과 아홉 가지 나물을 먹는 일도 의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다양한 장소에서 끊임없이 의례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의례를 행할까요?

설날과 추석의 차례는 인도네시아 한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1997년 9월, 파푸아의 한 회사 식당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두 달 전에 자카르타 한인마트에 주문해서 받은 북어포와 정종, 인도네시아 쌀과 찹쌀로 만든 송편과 탕국, 전이 차례상에 올랐습니다. 2024년 1월, 자카르타 한인성당에서는 설 미사가 열린 뒤 떡국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부 한국식당과 한인슈퍼마켓은 고객들에게 떡국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고국에 묻힌 조상이 먼 파푸아까지 와서 차례 음식을 드셨을까요? 차례를 받은 조상은 우리를 축복해 줄까요? 의문이 가득한 명절 의례를 재외동포들이 왜 인도네시아까지 와서도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걸까요? 한편으로 새배처럼 효과와 대상이 명확한 의례도 있습니다. 어른께 절을 올리면 축복의 말과 새뱃돈이라는 보상을 받는 방식이죠. 그러나 차례와 같은 명절 의례는 상징성과 공동체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디미트리스 지갈라타스는 저서 『인간은 의례를 갈망한다』에서, 의례가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며 세대 간의 연결고리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설날과 추석은 고국을 떠난 재외동포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확인하는 기회이자,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전승하는 수단입니다.

한인 공동체 차원에서 차례는 가족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축제로 확장됩니다. 서로의 전통을 공유하며 한식을 나누고 한국 문화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죠. 이를 통해 한인들은 정서적 지지와 연대를 느끼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송년회와 광복절 같은 의례는 인도네시아 한인 공동체에 어떤 의미인가?

송년회와 광복절 기념행사는 전통의례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한인 공동체의 결속력을 상징하는 의례입니다. 송년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취와 노력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성취를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로,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에서 영향을 받아 축제처럼 진행됩니다. 동포체육대회나 골프대회를 열며 한국과 다른 방식의 의례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조국에 대한 애정뿐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됩니다.

장례식, 결혼식, 입학식, 졸업식 같은 의례는 어떤 의미인가?

인생의 전환점을 기념하는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입학식, 졸업식 등 통과의례는 개인과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디미트리스는 “의례가 공동체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구조화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고 말합니다.

성인식은 아이가 성장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며, 입학식과 졸업식은 개인의 성장을 축하하고 가족과 공동체가 그 여정을 공유합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과 양가 가족이 하나로 엮이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삶을 기리고 산 자에게 위로와 삶의 연속성을 깨닫게 하는 의례입니다. 특히 토라자족의 장례식은 시신을 오랫동안 보관하며 대규모의 공개 행사를 통해 고인을 기립니다. 이러한 의례는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화하며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의례

이러한 의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와 미사를 드렸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도 줌으로 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음식을 간소화하고 현지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차례를 드리지 않고 위령미사나 추도예배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의 의례는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방식도 활용합니다.

맺는 말

디미트리스는 의례를 인간 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정의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들에게 이러한 의례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례는 한국 문화를 인도네시아에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결국 의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유지하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한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인도네시아 사회로 확장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끝]

사진 제공: 김혜정(자카르타 거주)





Hyaang, the yoga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가버디 michelle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한 해가 시작되고 첫 한 달, 잘 보내셨나요?
혹시 한 일도 없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간 것에 자책하고 있다면 (저처럼)
괜찮아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2월 이맘때는 마음 속 깊이 뿌듯해 하며 스스로 칭찬하는 모습을 나에게
선사해 주자고요!

향기들, 10분정도시간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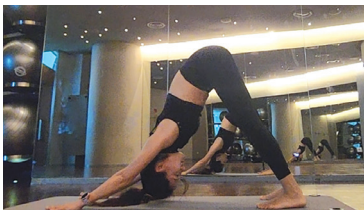
그럼 매트 잡고, 펼치세요!

목표 동작은 Viparita Virabhadrasana (평화로운 전사 자세)입니다.

전사 자세 동작은 유연성과 근력, 특히 허벅지의 근력을 높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소중한 자산입니다~(잔소리 잔소리x12)

Phase1 몸풀기



1. Adho Muka svanasana
(다운독)



2. santolasana(플랭크)

(다운독x플랭크) 10회

오션 웨이브로 몸에 시동을 걸고요

◆다운독; 손바닥 밀착시켜 앞으로
밀기, 코어에 힘, 어깨와 귀는 멀게.

◆플랭크; 팔 곧게 바닥과 직각, 코어
곧게, 어깨 움츠리지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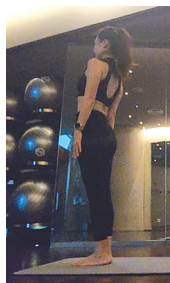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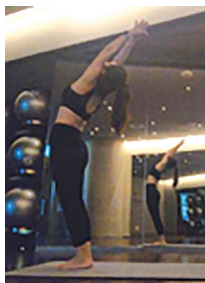
★3. 다운독



★4. 뒤꿈치 들고 무릎 구부리고 손 사이를 보세요



★ 5. 앞으로 점프, 무릎 펴고 등 펴고



6. Uttanasana

7. Urdvha Hastanasana(야자수 자세)

8. Tadasana(산자세)
(Standing forward fold 서서 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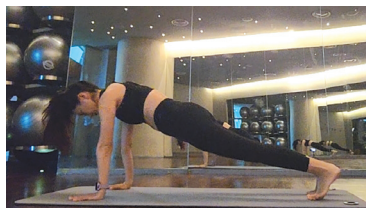
★3번에서 6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자세입니다.
이후로는, 줄여서 Vinyasa Flow라고 할게요. ★

Phase2 Surya Namaskara (태양경배자세) x5세트

지난 달 설명을 참고하세요. 사진은 그 중에서 차투랑가 단다사나 자세만 올렸어요.
(차투랑가 자세만 10회 이상 반복해줘도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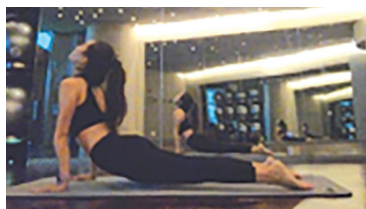


1. 다운독



2. 플랭크

- ◆다운독에서
- ◆플랭크로



3. Chaturanga Dandasana



4. Upward Facing Dog

- ◆차투랑가: 플랭크에서 팔꿈치를 뒤로 구부려 직각을 만들고, 몸통을 곧게 단단하게
- ◆업독: 차투랑가에서 그대로 몸을 밀며 상체를 곧게 세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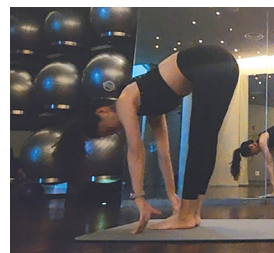
다음은 요가수련에서 계속 반복되는 ★Vinyasa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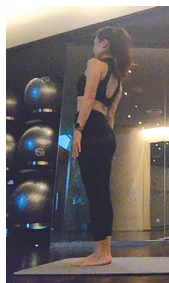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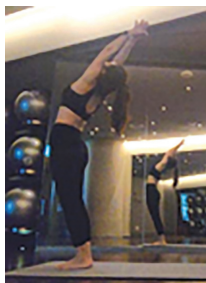
5. 다운독



6. 도움 달기



7. 앞으로 점프, 아르드바 우따나사나



8. Uttanasana

9. 야자수 자세

10. Tadasana

Phase3 목표 동작



- ◆3다리 개자세에서 다리를 뒤로 구부려주세요. 골반을 열어야 해요

이제 Peaceful Warrior 평화로운 전사 자세입니다. 자, 몸이 달구어졌으니 목표동작으로 들어가 볼까요?

<<1. Parivrtta Tri Pada Adho Mukha Svanasana Nata Pada (3다리에서 뒤로 구부린 자세)



2. Virabhadrasana 1
전사 1자세



3. Virabhadrasana 2

- ◆전사 1자세; 두 팔을 하늘로 쭉, 뒷다리 45도 안쪽으로, 상체를 꼿꼿하게, 다리는 직각, 10초 이상 유지하세요.

- ◆뒷발을 90도로 틀면서 골반을 열어주세요. (중요!)



4. Viparita Virabhadrasana(Peaceful War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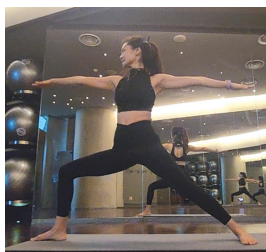
- ◆전사 2 자세에서, 내딛은 다리 쪽 손을 귀 옆으로 쭉 뻗고, 반대쪽 손은 무릎 위에 살짝 올려 놓고.

- ◆반대쪽 손을 허리 뒤로 감아봐요.

그럼 허리를 더 많이 스트레칭 할 수 있어요!

- ◆시선은 하늘

- ◆다시 전사 2 자세



5. Virabhadrasana 2



6. Utthita Parsvakonasana(Side Angle)

- ◆전사 2자세에서 구부린 다리 쪽 팔꿈치를 허벅지 위에 살짝 올리고 반대 팔을 귀 옆으로 쭉 뻗고,
- ◆팔꿈치로 짚어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만 올려 놓기!

- ◆시선은 하늘



7. Virabhadrasan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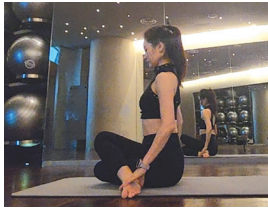
- ◆다시 전사 2자세
 - ◆5. 6. 7. 8 자세를 4세트 이상 반복
 - ◆자세 무너지지 않게 다시 고정!
- Other side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가 불타고 있나요?

그럼 잘하고 있는 겁니다, 허벅지 속에 서부터 근육이 차오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향기들!!★

Phase4 Cool Down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동작만 남았어요!



1. Paduka Bandini Asana(shoelace 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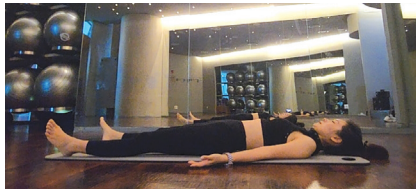


- ◆코어에 힘, 가슴 열고 어깨 내리고
- ◆두 손은 발등 잡고
- ◆무릎이 서로 만나서 가운데로 오게 하세요.
- 양쪽 균형이 중요해요.



- ◆코어에 힘,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 ◆다리를 들어올리면 자극을 더 느낄 수 있어요!
- ◆천천히 뒤로 누울게요.

2. Navasana(Boat Pose)



3. Savasana(시체자세)

-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 시체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 ◆손바닥을 위로 하고
-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빼세요.
- 끄을~!!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그것이 순환하게 만드는 게 요가입니다.
그래서 요가는 운동이 아니라 수련이라 하지요.
요가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고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향기들도 그런 걸 느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도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쌓이면 결국 즐겁게 되더라고요.

Namaste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운영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한 한국인들을 연구한 인도네시아 역사단체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 (Historika Indonesia) 이야기

글: 배동선

2013년 6월경 역사 저널리스트인 헨디 조(Hendi Jo)가 ‘1945-1949년 서부자바에서 벌어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일본군의 역할(Peran eks Tentara Jepang dalam Revolusi Indonesia di Jawa Barat, 1945-1949)’이라는 제목의 자체 연구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중 빠팍 왕자군(Pasukan Pangeran Pappak-이하 PPP부대)이라는 가룟(Garut) 와나라자(Wanaraja) 지역의 인도네시아 공화군 측 유격대에 합류한 일본군들 중 다수의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이는 1970년대에 일본인 학자 우쓰미 아야코가 이미 발굴해 1980년 일본에서 출판한 <적도 아래 조선인 반란>이란 저서에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바 있지만 헨디 조의 조사는 이러한 사전 정보와 관계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가룟의 저널리스트 선배 요요 다스리오(Yoyo Dasrio-작고)의 도움을 받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양철성(꼬마루딘) 외에도 국재만(수바르조)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인들이 유격대 대원으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해 활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한국 KBS 라디오가 헨디 조를 취재원 중 한 명으로 가룟 PPP부대의 조선인 청년들을 소개했고 이 사실이 인도네시아 역사 활동가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고무된 헨디 조가 평소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지인, 동지들과 뜻을 모아 2016년 4월 21일에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Historika Indonesia)라는 이름의 역사연구단체를 설립하고 구성원들을 관련 연구에 참여시켰다. 당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독립전쟁((1945~1949)을 비롯해 20세기에 벌어진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관련 역사 데이터를 보강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저평가된 로컬 독립영웅들을 조사, 발굴하고 빈곤한 생황을 하는 독립투사 후손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들의 활동에 포함되었다.

특히 압둘 바시드(Abdul Basyith - 이하 바시드)와 발래리우스 로날드 나요안 -이하 래리) 두 사람이 헨디 조의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맡았다. 바시드와 래리는 데이터 검색, 해당 이슈의 사회화, 모금 캠페인 등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참여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의 다른 활동가들도 해당 연구 관련 다양한 활동에 힘을 보탰다.

그 활동 중 하나는 공개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18일 자카르타에서 한국문화원(KCC)과 함께 “독립의 보편성: 인도네시아 혁명에서 한국 투사의 역할(Universalitas Sebuah Kemerdekaan: Peran Pejuang Korea dalam Revolusi Indonesia)”이라는 제목으로 토크쇼 형식의 세미나를 열었고 2019년 8월 16일에는 데백 소재 인도네시아 대학교 문화과학부(FIB UI)와 함께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역할(Peran Orang Korea dalam Perang Kemerdekaan di Indonesia, 1946-1949)’이란 제목으로 또 다른 세미나를 열었다.

2020년 11월 14일에도 ‘1945-1949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당시 가룟에서 발견한 한국인들의 개입’(Keterlibatan Orang-orang Korea di Garut dalam Perang Kemerdekaan Indonesia 1945-1949)이란 주제의 줌 웨비나를 파자잔 대학교(Padjadjaran University) 동문회

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의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지역사회 인사 접촉 및 지방정부 대관업무도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가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활약한 한국인들의 역할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가룟군청에 PPP 부대 기념비 건립과 양칠성로 설치를 설득하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인도네시아에 상륙하고 2년 가까이 해당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념비 건립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칠성로(Jl. Komarudin(Yang Chilsung))는 2023년 11월 10일 실제로 설치되어 가룟군청 온라인 관보에 등재되었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가 이를 위해 가룟군청과 이야기를 시작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대사관, 한인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 등 한인사회와 일정 부분 공조가 있었지만 전체 과정을 관통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의 끈질긴 노력이 주효했음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보하게 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가룟의 한국인 전사들의 프로필을 인도네시아의 메트



2025 신년인사회에서 대사 표창을 받은 Abdul Basyith



로TV(Metro TV), 전주 MBC 등이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일을 도왔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자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3년부터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1945~1949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속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2025년 8월 출판할 목적으로 준비 중이다.

양칠성로(Jl. Komarudin (Yang Chilsung)) 설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참전 한국인 전사 발굴과 연구에 기여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의 그간 노력에 대해 인도네시아 한인교민사회가 이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대사 표창을 상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룟을 방문해 양칠성로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은 해당 도로명 설치에 기여한 다음 몇몇 이름들을 기억해 두면 좋겠다.

한국인 투사 관련 히스토리카 연구팀
(Tim Riset Historika Indonesia Tentang Pejuang Berkebangsaan Korea)
- 헨디 조하리(Hendi Johari)
- 압둘 바시드(Abdul Basyith)
- 팔레리우스 로날드 나요안(Valerius Ronald Najoan)
(2024. 12. 15)

* 관련 자료

- 양칠성로 관련 VOA 블로그 기사
<https://www.voaindonesia.com/a/tentara-asing-bantu-perjuangan-ke-merdekaan-indonesia/7773909.html>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통신원 리포트
https://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24234 등



평범한 일상의 위로



Kenyamanan dalam Kehidupan Sehari-hari yang Sederhana

최하진 (ACS Jakarta 국어 교사, Bekasi)

시끌벅적하다. 수마트라에서 건너온 아라비카의 초콜릿 향과 로부스타의 묵직한 씹쓸함이 눈으로 보이는 이곳에 왔다. 정신을 밝히는 신비의 음료는 반지하 공간의 습도 어린 땀 냄새와 같이 뒤섞였다. 낮이었고 먼지 낀 전등의 깜박임에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휴 우~” 하고 깊은 숨을 마시고 한 사람 겨우 지나갈만한 틈을 사이에 두고 한 평 남짓 가게들을 지나쳐 들어갔다. 히잡을 쓰거나 무하메드의 수염을 닮은 사람들이 쉬어 가는 곳. 눈인사로 이웃임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이곳에 나는 나를 커피를 닮은 살갗의 사람들 사이로 비집어 넣었다. 난 이방인이 아니라고 최면을 걸고 이곳에 오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 속 파사르에 있다.

2020년 큰아이의 손을 잡고, 둘째 아이는 유모차에 넣고 나는 세계 여행을 떠났다.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생경한 다른 나라의 사람 사는 모습들을 아이들과 나누고픈 욕심이었다. 날씨는 초봄에 세워두면 초봄이 떨어질 듯했다. 하지만 모처럼의 여행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기 싫은 장면과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눈에, 카메라에 쏴 담고 있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은 그 와중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가 있겠노라고, 집과 자동차와 아이들 학교를 부탁하며 남편은 그렇게 떠났다. ‘인도, 인도, 인도네시아~~~’ 어릴 적 헛갈려 가며 불렀던 그 고무줄 놀이의 단골 노래 가사 속의 그곳으로 말이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가 출몰했다. 코를 후비는 검사를 지독히

도 하게 만들었던 코로나바이러스. 얼마 남지 않은 입국인데 비행기를 못 타면 어쩌나 마음 졸이며 한국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 걱정은 뒤로 펼쳐질 일의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결정을 해야 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모든 것들은 나의 판단에 의해 처리해야 했다. 집을 내놓고, 자동차를 매매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거래가 줄은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집도 보여주지 못한 채, 새 집을 멋진 나의 애마를 헐값에 넘겨 처분했다. 컨테이너로 집을 보내고, 아이들 학교에 서류를 챙기고 이제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길이 막혀버렸다. 심상치 않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에 인도네시아로 입국되는 비자 발급이 중단이 된 것이다. 차라리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머물던 싱가포르에서 들어갔다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비행기표는 하늘에 매단 굴비가 된 격이었다. 외국에 머물던 재외 동포들이 가족과의 이별을 감수하며 한국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을 때, 나는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다. 그곳이 어디든 낯선 땅에 있는 배우자를 보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협박을 이겼다. 혹여 다시 만나지 못할까 봐 매일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없던 위경련이 생긴 것은 그 즈음이었다. 일단 2달을 견디기 위한 원룸을 급하게 구했다.

파사르의 두 번째 집은 건너편의 계단 옆에 붙어 있는 가게다. 물병, 종이컵, 플라스틱 통, 대걸레, 비닐봉지... 어릴 적 트럭에 싣고 우리 동네에 5일



마다 오던 딱 만물상이다. 대무대 위에는 꽃잎에 한 바구니 놓여있다.(힌두교인들이 기도할 때 쓴다.) 향을 팔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삼발 소스를 만드는 절구도 판다. 나무를 깎아 정교하지 않지만 작은 공이를 세트가 돌로 만들어진 절구와 함께 올려져 있다. 가벼운 물건들은 비닐봉지에 묶여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어릴 적 문구점 천막 위에 매달린 빨강고 통통한 돼지 저금통을 보듯 했다. 이곳에서 나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 봉투를 구입하면서 아저씨는 피상고fod 하나를 내게 권한다. 맛있게 튀겨진 바나나 튀김을 들고 나는 약과 두 봉지를 건넸다.

한 가지씩 일이 해결이 될 때마다 안도감보다는 걱정과 후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이 뒤섞였다. 1분 거리로 걸어 다니던 아이들의 학교는 원룸의 위치로 25분이 걸리게 되었고 차는 이미 판 뒤였다. 열 평 남짓 원룸은 전면의 절반이 창으로 되어있었다.

창에서 쏟아지는 빛을 가릴 커튼이 쳐지지 않은 아무도 살지 않았던 신축 원룸이었다. 급하게 얻은 원룸은 햇빛 이외의 물도 천장에서 쏟아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장을 적실 뿐이었다. 그 다음 날에는 구멍 뚫린 풍선에서 쏟아지듯 흐르기

시작했다. 아침, 저녁 특정 시간대에 쏟아졌다. 뽕 집에서 샤워를 하는 시간대였을까? 그릇도 없는 데 새는 물 한 번, 자고 있는 아이 둘을 한번 그렇게 날을 썼다. 처음에는 새는 물을 받을 살림살이도 없는데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었다. 결국 매서운 초봄 바람에 아이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나와 비즈니스호텔을 전전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기약 없는 날이 늘어졌다. 원룸은 재계약을 했다. 전세로 얻어야 할까?

워킹맘으로 지내면서 힘들다고 불평을 하며 살았었다. 아침마다 아이 둘을 혼자 챙겨 한 녀석은 어린이집에 한 녀석은 학교에 넣고, 출근하기가 벅찼었다. 직장에서는 쉴 새 없이 서서 이야기하는 일이라 다리는 통통 붓고, 천식처럼 기침을 달고 살았다. 그러고 나서 퇴근 후 둘을 데리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놀이터며, 저녁 차림이며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버거웠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편이 없고 보니 그래도 그때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은 남편이 있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던 것이다. 물이 새지 않는 집에 살아서 따뜻한 물로 겨울을 추운지 모르고 지냈다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게 되었다. 지금 시기에 따뜻한 물을 감사하게 될 줄이야. 물이 새지 않는 곳에 있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줄이야.



비즈니스호텔이지 모텔에 가까웠던 그곳에 아이들과 지내야 하면서 나는 미안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헤매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남편의 연락이 왔다.

“아무래도 더 길어질 것 같아. 원룸을 다시 알아봐.”

남편의 걱정스러움은 순간의 위로로 주었다. 새로 얻은 원룸은 다행히 물도 새지 않았고, 불도 어둡지 않았다. 컨테이너로 숟가락 하나까지 꿩꿩 싸매어 보냈던 나는 처음에는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말아지는 실리콘 도마를, 천 원짜리 과일 칼과 플라스틱 접시 그리고 천오백 원짜리

포크와 수저를 구입했다. 두 달이면 떠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니까.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나는 나무 도마를 주문했다. 스텐 젓가락과 숟가락을 골랐다. 기약이 없어짐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직 내 곁에 아이들이 있음을, 아직 건강함을 감사하며 지냈다. 그 이외의 다른 고민과 걱정들은 하나로 단순해졌다. 인도네시아로 들어가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하지만 어쩌면 곧 갈 수 있을 거라는 나의 바람은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다.



만물상을 이맘 아저씨를 지나쳐 계란 아줌마에게 간다. 세 개의 나무 박스가 나란히 놓인 그곳은 한 무더기의 일반 계란, 푸르스름한 오리알, 한 층 깔릴까 말까 한 유정란이 있다. 10알, 1판 단위로 계란을 사던 한국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kg으로 알을 팔고 있다. 1kg을 맞추기 위한 아주머니의 쥘마른 손이 부지런히 알 무더기를 오고 간다. 999g으로 맞추던 눈금은 이제 1.02g으로 맞춰진다. 나도 익숙한 듯 “Terima kasih, bu” 인사를 나눈다.

코로나 상황은 더욱 심각 해졌다. 등교 수업이 금지가 되고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다니... 두 아이들은 좁은 원룸을 답답함을 높이 삼아 방을 정글로 만들었고, 밥을 하다, 수업을 봐주다 청소 빨래를 하다가 엄마라는 사명감으로 정신없이 버티고 있었다. 그 와중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온 거다. 젊은 아가씨였다.

그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 자택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갑갑해서 뛰어 났고, 나는 주의를 주느라 협박을 하느라 신경이 곤두섰다. 옆집은 봐주지 않았다. 문 앞에 포스트잇이 테이프로 붙여진 채 4장이 붙어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찢은 공책이 붙어있었다. 연이어 나는 반갑지 않은 러브레터를 받게 되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절부절못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 편지도 써보고, 간식을 걸어 두었다. 하늘길이 열리면 바로 나갈 거라는 나도 믿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본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문 앞은 또 다른 불평을 담은 여러 개의 편지가 붙어있었다. 빈 집이었는데 말이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모두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 했던, 예민해 있었던 탓이라고 하자.



야채 가게를 도착하기 전 떠오르는 아저씨가 있다. 해리 아저씨. 로컬 시장에서 장을 보는 외국인 이 안쓰러웠는지, 무엇을 사고 싶냐며 먼저 나온 해리 아저씨. 본인의 가게의 물건이 좋지 않으면 이웃 가게의 야채를 품삯 없이 구매 주었다. 팁이라도 주려고 치면, 이 시장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고맙다고 한사코 마다했다. 양이 적었고, 늘 내게 좋은 물건을 현지인에게 보다 싸게 주었다. 그게 잘못되었을까?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다. ”제값을 주고 살 것을. 안 받는다고 해도 팁을 챙겨 드릴 것을.” 아쉬운 마음에 두 개뿐인 앞니로 활짝 웃던 아저씨가 그림다.

옆집 아가씨는 고무 망치를 구입했다. 그리고 그 둔탁한 물체로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벽을 치기 시작했다. 단단한 콘크리트 벽은 여의치 않았을까? 나무로 연결된 머리말의 벽을 “쿵 쿵 쿵, 쿵쿵 쿵” 아침부터 아이들의 발소리와 말소리와 망치소리로 합창을 시작해서 또 그렇게 하루가 끝이 났다. ”쿵쿵 쿵, 쿵쿵 쿵” .

밖은 코로나로 위험했고, 모두 얼굴에는 눈만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서로 티를 내지 않느라, 또는 누가 걸린 것인지 알아내느라 동전을 던졌다. 사람이 무서웠던 그때, 자연은 두려움 없이 다가왔다.

원룸에는 놀이터도 없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때에 나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렇게 원룸에만 있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쿵쿵 망치 소리에 쓰러질 판이었다. 안되겠다. 나는 접는 자전거를 샀다. 곧 떠날지도 모른다는 염려는 바람에 보내 버렸다. 아이들을 가뉘돌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

나가자. 가까운 곳이 안된다면 시외 로라도 나가자. 택시를 잡아탄 나는 꾸역꾸역 자전거를 트렁크에 넣고 아이들을 안았다. 공원은 그대로였다. 왜 이제 왔냐는 듯 기어가는 에벌레도 보여주

고, 같이 놀던 새 노래도 들려주었다. 나무 고아원. 버려진 나무들이 모여 심어진 그 곳에서 하루하루 희망을 찾고, 숨도 쉬었다. 상쾌한 나무 향기가 답답했던 원룸 냄새를 날려버렸다. 가슴 벌려 뺏은 가지는 답답했던 내 마음을 하나 하나 접었던 가지 퍼듯 열어주었다. 두려운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었지, 자연의 손길은 언제나 자애로웠다. 아이들과 작은 조약돌을 주워 공기놀이를 했다. 흙을 파며 소꿉놀이를 시작했다. 고슴도치를 닮은 마른 풀 포기에 누런 잎이 연두색으로 변하는 광경을, 나무에 새순이 나는 모습을 마스크에 갇힌 코로 흡입했다. 그 날 이후 새로운 백신이 나무에서 나와 내게 신성한 면역력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그 힘으로 2020년10월 20일 지난, 겨울 여행을 시작한 이래 남편과 헤어진 지 12개월만에 드디어 상봉을 하게 되었다.

살아있다는 현재형이 너무 감사했던 그때, 일상이 그리웠던 그때를 기억하는 나는 오늘 파사르에 간다. 이제는 깊은 숨을 들이쉬지 않는다. 작은 가게들을 지나갈 때 시간이 지체된다. 친구들과 눈맞춤을 하는 순간이 행복한다. 눈웃음으로 나를 반기는 반가움이 느껴진다.” 언니, 언니가 자랑스러워!” 이유도 없이 연습한 한국어를 내게 말하는 살사는 인도네시아인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내가 자랑스럽 단다. 4년전 그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만난 나무를 닮은 사람들이 나를 반긴다. 나에게 웃음 짓는다. 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뿐이다. 오늘도 한국의 나무는 가슴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겠지.



한경이와 다경이의 미니 동물원

한경이와 다경이의 특별한 동물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리 집에는 귀엽고 특별한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미니 동물원 주민 소개



1. 게코도마뱀 시연

이름: 시연

나이: 2024년 성탄절에 선물처럼 나타난 친구

종: 게코도마뱀

성격: 뒷다리가 마비되었지만, 앞다리로 열심히 걸어 다니는 씩씩한 친구

자랑: 한경이가 정성껏 보살피며 직접 먹이를 챙겨주며 키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바퀴벌레도 손수 먹여줍니다! 작은 몸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2. 게코도마뱀 초롱

이름: 초롱

나이: 2024년 성탄절에 데려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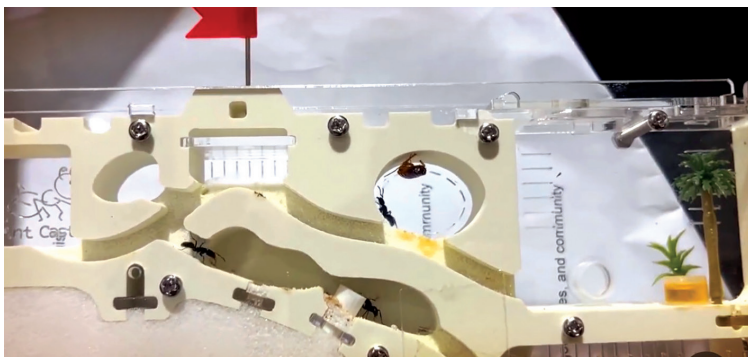
종: 게코도마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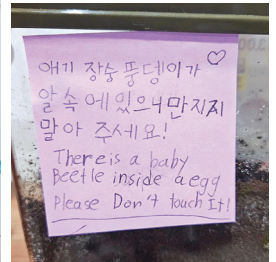
성격: 사람 손에 잘 올라오는 순둥이

자랑: 처음엔 핸들링이 어려웠지만, 다경이가 꾸준히 사랑을 주며 잘 키운 덕분에 지금은 다경이 손에 척척 올라와 놀아주는 귀여운 친구랍니다.

쑥쑥 잘 자라서 건강해요.

3. 개미 군단: 우리 집 미니 동물원의 가장 작은 주민들. 부지런히 일하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꼬물 꼬물 움직이는 개미들을 보며 한경이와 다경이는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어요.





4. 장수풍뎅이 헬크와 장이의 후손들

한경이와 다경이가 들려주는 장수풍뎅이 이야기!

옛날 옛날, 우리 집에 특별한 친구들이 살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장수풍뎅이 헬크와 장이였어요. 헬크는 다경이 생일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책길에서 특별히 잡아다 주신 친구였어요. 그리고 헬크가 외로울까 봐, 아빠가 장이를 데려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 헬크와 장이는 딱 맞는 짝이었고, 둘이 힘을 합쳐 많은 알을 낳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팀이었죠!

하지만 슬픈 일이 찾아왔어요. 알을 낳은 후, 헬크는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다경이는 눈물을 꼭 참고 헬크를 정성껏 보내줬어요. 그리고 장이는 씩씩하게 두 달을 더 살다가, 마침내 헬크를 따라갔답니다. 그날, 다경이는 펄펄 울면서 집 앞마당에 헬크와 장이를 나란히 묻어주었어요.

“헬크야, 장이야, 고마웠어. 우리 오래오래 기억할게!”
다경이는 꼭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헬크와 장이가 남긴 보물 같은 알을 키우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들이 번데기가 되려고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며, 한경이와 다경이는 매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라 애벌레들! 멋진 장수풍뎅이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도와줄게!”

이제 우리 가족은 헬크와 장이가 남긴 이야기를 오래오래 기억하며, 새로운 장수풍뎅이 친구들과 함께 지낼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우리처럼 곤충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집사 소개 

이한경 & 이다경 (G4 & G3, Sinarmas World Academy)

- 언니 집사 한경이: 편지 쓰기가 너무 어렵다며 끝내 포기한 진지한 꼬마 집사. 대신 애정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정성껏 돌봐주는 든든한 보호자.
- 동생 집사 다경이: ‘물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도마뱀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밝고 사랑스러운 집사님.

미래를 향한 힘찬 발돋움 2024학년도 JIKS 고등학교 졸업식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학교장이선아)는 2025년 1월 10일(금) 제 26회 고등학교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졸업하는 12학년 90명 학생을 위해 대사관, 한인회 등 많은 분이 졸업식에 참석하여 미래 한인사회의 주역들을 향해 응원해 주었다. 학생 모두가 한 사람씩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수여 받고 학부모님, 내빈, 후배들의 축하를 받으며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선아 교장은 졸업식 축사에서 지난 12년간의 초중고 학창 생활을 마무리하며 사회로 향하는 졸업생들에게 무례와 혐오, 경쟁과 분열, 나태와 허무의 익숙함과 달콤함에 길들여지지 말고 자신에게 친절하고, 그 친절을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하기를 바란다는 권면을 주며 졸업생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대리는 졸업식 축사에서 졸업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라고 강조하며,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격려했다.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기를 바라며, 졸업생들의 꿈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김경국 재단법인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은 졸업식 축사에서 급변하는 현재와 미래 사회 속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도전을 갖고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바라보며 순간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권면하며, 졸업생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김중헌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양태화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졸업식 축하에서 졸업생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였다. “끊임없이 도전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라고 전달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젊음과 열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며, 부모님,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였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2024학년도 놀라운 대학 입학의 쾌거를 올렸다. 서울대학교 4명, 연세대학교 23명, 고려대학교 4명, 성균관대학교 30명, 서강대학교 20명, 한양대학교 21명, 중앙대학교 31명, 메디컬 계열에서는 인하대 의대 1명,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약대 1명, 숙명여대 약대 1명 등 총 53개 대학 310명(중복합격 포함)이 합격하는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의 위상을 높였다.



이선아 교장은 학력 신장과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이 맺은 결과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는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최고의 재외국한국학교가 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이하가 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IKCS 북클럽,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첫 모임 성황리에 개최

지난 1월 4일(토) 오전 10시, 자카르타 한인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에서 제1회 한인회 한인문화연구원 북클럽(IKCS Book Club) 첫 모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모임은 채인숙 작가의 주도로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깊이 있는 토론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문학적 통찰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예비모임은 12월4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첫 모임에서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선정되어 논의가 이뤄졌다.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나의 가장 최근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이 작품을 자신의 대표작으로 소개한 바 있다. 작품 논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와 기억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한 참석자는 “작품 속에서 주인공 경하가 폭설을 뚫고 새를 구하러 가는 여정은 단순한 구조적 설정이 아니라 인간성과 자연의 깊은 연결을 보여준다”며, 한강 작가의 섬세한 문체가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통해 현재를 구원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회원들은 작품 속에서 드러난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가 죽음과 삶을 관통하며 이어지는 과정을 탐구했다. 발제를 맡은 황영은 회원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 문학이 주는 통찰과 감동을 다시금 느꼈다”며, 문학을 매개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채인숙 작가는 “한강 작가는 하나의 장편소설을 쓸 때마다 질문들을 건디며 그 안에 산다”며, “『채식주의자』에서 ‘폭력을 거부하며 인간으로 살아가 수 있는가’, 『흰』에서 ‘과거가 현



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듯이 한강 작가의 소설은 단순히 독자적인 이야기의 집합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건디며 찾아낸 질문으로 이루어진 삶의 궤적이자 사유의 과정”이라며 한강 문학의 철학적 깊이를 높이 평가했다.

IKCS 북클럽은 시집, 소설, 수필 등 다양한 장르와 시대를 아우르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문화 탐방, 작가 초청 강연, 글쓰기 워크숍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은 “IKCS 북클럽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문학과 문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활동과 문화적 경험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지적,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첫 모임은 한국 문학의 가치를 조명하며, 책을 통해 한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참석자들은 “문학이 단순히 개인의 취미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며 IKCS 북클럽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했다.

IKCS 북클럽 회원 15명은 앞으로도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깊이 있는 독서 경험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한인 사회가 문화적으로 더 풍요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공: 임채연 회원)



롯데마트 꾸닝안시티점, 'K푸드 중심 그로서리 전문 매장' 리뉴얼

자카르타, 2025년 1월 23일 - 롯데마트 꾸닝안시티점이 리뉴얼을 통해 '그로서리 전문 매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고객에게 고품질의 상품, 쇼핑 편의성, 문화를 결합해 혁신적인 쇼핑 및 새로운 다이닝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모던한 한국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엄선한 상품 구성으로 고객은 보다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김태훈 롯데마트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이번 리뉴얼은 단순히 고품질 상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머무르며 식사를 즐기고 특별한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활기차고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롯데마트 꾸닝안시티점은 현대적인 매장 디자인과 다양한 F&B 옵션을 통해 고객의 쇼핑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한국 및 로컬 뷰티용품 프리미엄 주방용품, 반려동물 전문 매장인 Coco-luci 펫샵,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초이스엘(Choice L) 상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롯데마트 꾸닝안시티점은 단순한 마트를 넘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매장 곳곳에는 LED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가 설치되어 오픈 환영 메시지, 상품 할인 정보 등이 시시각각 보여져 고객들은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쇼핑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고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소통할 수 있

는 아늑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선한 농산물, 육류, 해산물 등 다양한 식재료는 물론,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누들 존’도 선보인다. 롯데마트 꾸닝안시티점은 쇼핑을 넘어선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23일 리뉴얼을 기념하는 그랜드 리런칭 행사에서는 리본커팅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성현 롯데마트 글로벌 CEO와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린 강래오 셰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중헌 회장, 잡과푸드(Japfa Food) 빌리 탐 부회장 등 주요인사들의 참석했다.

롯데마트 꾸닝안시티점 리런칭을 기념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특별 프로모션이 마련되어 있다. ‘요리하다 키친’에서는 직장인 사원증 할인 이벤트를 통해 주중 해피 아워에는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 회원 전용 프로모션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매일 다양한 상품 할인과 함께 초저가 번들 패키지 등 특가 이벤트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최신 소식은 Instagram에서 @lottemartindo를 팔로우하거나, LOTTE Mart Point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웹사이트 www.lottemart.co.id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제공: 롯데마트)

중 재(Arbitrase) (1)

1.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뢰하지 않고,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 상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국 상사중재원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이 중재 제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어야 하며,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 (1).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쯤 걸리고 있으나,

- (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고 한다면 착각이며,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반판사가 맡으며,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한다.
-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인도네시아 중재원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즉,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학식, 경험, 경륜이 있는 법조인, 학자, 기업인, 기술인, 국제무역전문가,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피청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중재원에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상업, 행정, 노동, 종교, 부정부패, 군법),
-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금전대여, 임대차, 제조, 가공, 수선, 공급, 도급, 광고,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대리, 중계, 위탁매매, 운송, 신탁,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건축, 해운, 특허, 대리점, 수출입 알선, 상품판매, 도매,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반드시,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분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분쟁해결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으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 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	835 1540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 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라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츠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뽕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뽕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뽕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뽕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매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뽕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아시안 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스타일	2952 8443
깜닭	4584 5837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다운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복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 식당	0852 1506 121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4007-7256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가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콕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마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살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맞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 8051 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썸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	----------

오름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균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웅)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여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동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 단&발리

메 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아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대전고(윤내선)	426 2954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영산대(최재혁)	590 0401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김 종 헌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차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11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BS

DONGHAE

SIMS

MINTEC

SRT

ABM

KIDECO

Yeong Yang
Wind Power

ST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